



경북, 상생과 미래를 위한 약속... 대한민국 미래차 부품산업 중심도시로 우뚝  
 지난 6일 경북 주도 투자·일자리, 미래차부품 슈퍼클러스터 조성 협약식이 경북도청 동관관에서 열렸다. 이날 이철우 지사는 "경주·영천·경산이 국내 최대 미래 차 자동차부품 산업단지로 성장하고, 미래 일자리를 선점할 수 있도록 도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지역 핵심 자동차 부품기업 다스, 예코플라스틱, 영신정공, 화신, 신영 등 10개사 대표 및 부품기업 집중도시인 주낙영 경주 시장, 최기문 영천시장, 조현일 경산시장, 배한철 경북도의회의장과 이정한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경영계, 한국노총 경북지역본부, 금속노조 경주시지부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관련기사 6면에]

## 영천시, 대구 군시설 유치 추진위 개소

시민화합·유치 홍보, 대내·외 인적 네트워크 구축  
 市, 군시설 TF팀 외곽 대구시와 가교역 정무특보 기용

대구 군시설 이전과 관련한 영천(민간)유치추진위원회 사무실이 지난 7일 개소돼 영천상공회의소 1층에서 현관 및 개소식을 가졌다. 유치위원회 구성 한 달 만이다. 영천 유치 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정서진, 박봉규)는 지난 11월 10일 시민 80명으로 구성된 민간단체로 창립해 민·관 가교 역할과 군시

설 유치 홍보를 비롯한 유치 관련 네트워크 구축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번 사무실 개소로 유치위는 이날 향후 사무실 운영, 유치 홍보 방안 등을 마련해 영천시의 유치 전략에 맞추어 민간 차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영천시는 지난 9월 8일 영천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구 군

시설 유치 TF팀을 구성한 이후, 10월 13일 시민대상 추진 상황 보고회 개최, 11월 10일 민간 주도 유치 추진위 출범에 이어 오늘 민간 유치위 사무실을 개소해 본격 유치전에 불을 당길 예정이다. 이로써 영천에는 군시설 유치와 관련해 2개 조직 3 날개가 구성돼 본격 유치전에 시동이 걸릴 방침이다. 제1조직은 설동수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TF팀으로 주시무를 담당하고, 지난 12월1일 총무과 소속 별정직(6급)으로 기용된 김상현 정무특보는 대구시와의 접촉 가교 역할로 TF팀의 핵심 동력이 될 전망이다. 또 이번에 사무실을 개소한 민간 군시설 유치 추진위는 외곽에서 홍보 및 군시설 관련 네트워크 구축을 각각 담당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돼 홍보·실무·정무 3박자가 완성되면서 유치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장지수 기자



## 이만희 의원, "민주당의 '입법독재', '예산완박' 국민 심판 받을 것"

이태원 사고 이만희 국정조사 특위 간사 전격 사퇴, 국조 불참



이태원 사고 국민 의힘 국정조사특위 간사인 이만희 의원이 14일 개시된 국회 (이태원)국조특

위 불참을 선언했다. 앞서 與/野 원내대표 협의로 내년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를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일요일인 지난 11일 국정조사 핵심 출석 당사자인 이상민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민주당이 국정조사도 하기전에 단독 강행 처리하자 국민의힘은 "與·野 원내 합의를

무시한 것"이라며 예산안 처리 우선을 주장해 오면서 국조특위를 전면 보이콧했다. 앞서 국민의힘 국조특위(간사 이만희 의원) 위원 7명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 국회 통과에 반발해 전원 사퇴 의사를 밝혔다. 장지수 기자

### [본지 새 필진]

#### 임종택 박사(생태환경작가·다숲연구소 대표)



임종택 박사

2023년 새 해부터 임종택(59) 박사가 영천투데이와 (주)영천신문 새 필진으로 합류한다. 경북대학교에서 농업을 전공한 임 박사는 대구한대의에서 환경조경학 석·박사 과정을 거친 숲과 조경 및 전원생활 등 자연과 생태/환경 전문가다. 영천신문에서는 지면 제353호 초록(칼럼)을 시작으로 [임종택의 숲과 人間] 코너에 계묘년(癸卯年) 새 해부터 숲 전문 칼럼으로 독자들과 만난다. 생태·환경·조경 전문가인 임 박사는 영천 신녕 출신으로 생활권은 대구 남구에 주소를 두고 있다. 현재 다숲연구소 대표, 사)전원생활 운동본부 이사로서 있으면서 대구신문 전속 칼럼니스트다. 이로 인해 영천신문 전속 및 객원 필진은 △부산 외국어대 명예교수 김문길 박사, △소설가 김유미 작가, △계명대 박노

광 경제학 박사, △세무회계 바로 운영 민 세무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 김섭 대표 변호사, △권순환 동아일보 전문설위원, △미국 워싱턴 이민변호사, △조우석 전KBS이사(뉴스타운 정치평론),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예비역 대령) 등 모두 10명으로 늘었다. 생태/환경 작가이기도 한 임종택 박사는 수목보호기술사, 조경기능사, 산림치유지도사, 도시농업관리사 등 자격증을 갖추고 그동안 경북농민사관학교, 환경연수원, 농업기술센터와 관공서 등에 강사로 출강하고 있다. 저서로는 「도시숲조경관리」, 「더불어 숲」 등 다수가 있다.

### 신입 및 경력 기자 모집

- 부문 : 취재기자 0명
  - 급여 : 최저 250만원 이상
  - 나이제한 : 만 50세 이하
  - 서류 :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1500자 이내 자기소개서
  - 제출처 : 메일 ycn@yctoday.net
  - 서류심사 후 별도 면접 통보
  - 합격자 추가 제출서류 별도
- <제출된 서류 반환하지 않음>

(주)영천신문 / 영천투데이

2023학년도 **영천시 어린이집 원아모집**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세상만들기  
 영천시 어린이집 연합회

**원서접수기간**  
 11월1일부터 상담 및 접수  
 영천시 각 **어린이집**으로 문의 바랍니다.

2023학년도 **영천시 어린이집 원아모집**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세상만들기  
 영천시 어린이집 연합회

**원서접수기간**  
 11월1일부터 상담 및 접수  
 영천시 각 **어린이집**으로 문의 바랍니다.

# 경산시청 허위공문서 공무원 취업 사기 사건 '경찰 신속 수사 기대'

피해자들, 제3피해예방 위해 경찰 엄중·신속 수사 촉구  
허위·가짜 공문서 만들어 조현일 경산시청 관인 찍어  
피의자 J씨, "억울합니다. 제가 더 피해자다" 강한 항변  
경산시, "허위문서 명확" 유사 피해 우려 신속 수사 의뢰  
경찰서, "피해자들 제3피해 우려 위한 빠른 수사에 공감"  
J씨, 경북 영천 조계중 사찰에서 연말 대규모 행사 계획

공무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가짜 공문서로 금전을 요구했다  
가 사기혐의로 고소·고발된 사건  
을 두고 제3의 피해방지를 위해  
신속한 경찰 수사가 요구된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대구에 거주하는 A씨(59)는 지난  
7월께 자신의 자녀를 경산시청 정  
규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경산 거주 J씨(43, 여)의 말을 믿고 수차  
례에 걸쳐 700여만원을 전달했다  
가 거짓으로 확인돼 약 4개월여 만  
인 지난 10월27일께 겨우 돈(전액)  
을 되돌려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면서 A씨는 "또 다른 유사  
행위가 더 있는것으로 확인돼 제3  
의 피해를 막기위해 지난 11월1일  
경찰에 J씨를 사기혐의로 고발했  
다."고 밝혔다.

A씨는 "J씨가 자신은 떳떳하다면  
서 여기저기 해명과 함께 아직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어 다른 피  
해를 막기위해서라도 고발이 불가  
피했으며, 경찰의 빠른 조치가 시  
급한 실정이다"며 지난 5일 본지에  
알려왔다.

A씨는 "자녀가 J씨의 공무원 공  
채 합격 가짜 연수원 통지서로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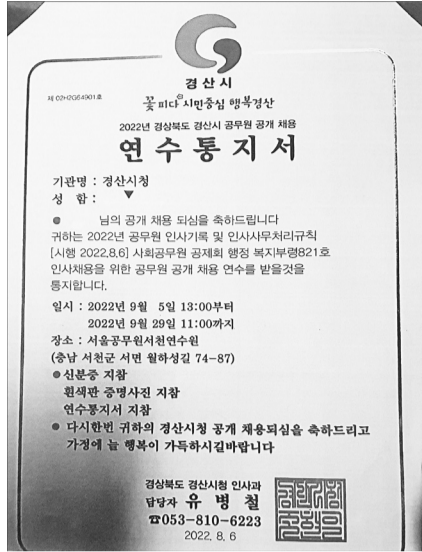
해 앞선 직장(타 시청 파견 직)에  
서 사표까지 내 금전 외에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상당한 큰 피해를 입  
고 있다"는 주장이다.

본지 확인 결과 사기혐의로 고발  
된 J씨는 A씨를 안심시키기 위해  
지난 8월6일과, 25일, 9월19일 세  
차례에 걸쳐 경산시청 인사과 Y담  
당자(유병철) 명의의 경산시청 관  
인이 찍힌 가짜 공무원 채용 연수  
통지서(안내문)를 만들어 전달하  
는 등 대범함과 치밀함까지 보였다.  
(공문서 사진)

경산시청 관계자는 "이미 올해 1  
월1일 경산시청(조현일) 관인은 새  
서체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공문  
서에 안내된 인사부서 전화도 당직  
번호며, 인사담당(유병철) 역시 부  
서에 존재하지 않는 이름으로 J씨  
의 행각에 우리도 놀랐다"는 반응  
이다.

(허위공문서 작성) 이같은 사실  
을 알아차린 경산시는 본지 취재  
에서 "혹시 있을 제3의 피해방지를  
위해 지난 11월2일 사건 발생과 동  
시에 신속하게 경산경찰서에 J씨  
를 공문서위조 및 허위문서 작성으  
로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다른 피해자들의 제보도 잇따



랐다.

구미에서 언론사를 운영하는 B  
씨(63)도 "J씨가 국내 굴지의 한 회  
사 홍보전담언론사로 지정해줄 수  
있다"며 10월과 11월초에 500여만  
원을 요구해 돈을 건넸다가 역시  
거짓으로 확인돼 가까스로 돈을 되  
돌려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경주에 사는 C씨(58)는 "J씨로  
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에 때마  
침 돈이 없어 빌려주지 않아 다행  
히 별다른 피해는 보지 않았다"며  
5일 본지에 제보해 오기도 했다.

이 외에도 대구 거주 한 인테리  
어업자 D씨, 또 A씨와 잘 아는 대  
구 거주 E씨도 J씨에게 금전 피해  
를 입은 것으로 전해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서라도 경찰의 발 빠  
른 조치가 불가피해 보인다는 지  
적이다.

이처럼 피해자들은 "J씨는 정치  
인들과 인맥을 넓혀 사진을 찍고,  
자신을 홍보하는 등 수법으로 가짜  
공문서를 만들어 취업을 미끼로 돈

을 갈취하는가 하면 다문화가족 등  
을 앞세운 행사 등에서도 찬조금과  
후원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면서 본지에 제3의 또다른 피해를  
우려하고 경찰의 신속 수사를 재차  
주장했다.

한편, J씨는 오는 12월 23일 영  
천 소재 한 사찰에서 대규모 '다문  
화가족 송년축제' 행사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말에 영천에서 열릴 예정인 이  
행사에는 권영세 통일부장관을 비  
롯해 주호영·권성동·윤두현 등 유  
명 국회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  
리, 이철우·김진태·조현일·홍준표  
등 굵직한 지자체장, 영천시 최기  
문 시장 등 20여명의 정치인의 이  
름이 축사 및 환영사에 올려있다.

그러나 J씨는 본지와와의 대화에서  
"저는 억울하다. 저한테 피해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제가  
피해를 보아 이들을 억으로 고발  
했다"면서 11월 21일 A씨와 E씨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제출한 '명

예훼손 정신손해배상'소장을 제시  
하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J씨는 "오히려 이들 때  
문에 소속 단체의 직책까지 잃고  
스토킹과 폭행까지 당해 얼굴 광대  
뼈와 손가락, 무릎 등에 부상을 입  
고 경찰에 신고해 수사에 들어갔  
다"면서 앞선 자신의 혐의 등을 강  
하게 부인했다.

이와 관련해 경산시는 "공문서  
위조는 명확하다"면서 제3의 또 다  
른 피해 방지를 위해 사건 발생과  
동시에 신속하게 수사의뢰했다"고  
전하고 경찰의 엄중한 수사를 기대  
하고 있다.

또 경산경찰서 관계자도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이같은 사건 접수 후  
수사 확인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았다.

다만 이 관계자는 "제3의 피해  
방지 우려를 위한 피해자들의 걱  
정 등에는 공감한다"는 취지의 답  
변이다. 장지수 기자

# 경북기독교계, 교육부 2022 교육과정 개정 즉각 폐지 주장 기자회견

헌법·교육기본법 위배, 성적체성혼란, 사회기본윤리 파괴  
교육과정 새 집필진 구성 요구...尹 대통령, 교육부에 경고



경북지역 기독교계가 교육부  
'2022 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해 즉  
각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경상북도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  
장 방영팔 목사)와 포항시기독교  
교회연합회(회장 박석진 목사), 포  
항성시화운동본부(대표본부장 김  
영걸 목사) 등 26개 단체 40여명은  
지난 7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교육부는 나쁜 2022년  
개정 교육과정(초·중·고 교과서)  
을 즉각 폐지하라"고 목소리를 높  
였다.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는 ▲  
남·여 양성기반 생물학적성(sex)  
체계를 50여가지 사회문화적성  
(gender) 기반으로 분류해 나누었  
고 ▲동성결혼을 정당화 하고 있으



며 ▲동성애 관련 일체 비판 금지  
등 ▲포괄적차별금지법을 정당화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다 ▲민  
주시민 교육이라는 미명하에 특정  
정파를 지지하는 교육이 포함된 것  
은 교육기본법을 정면으로 위배하  
는 것이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개정 교육과정은 "성적자결  
정권이라는 이름으로 성적 쾌락과  
낙태를 청소년의 권리로 부각시

켜 조기 성애화를 합리화하면서  
성별체제, 동성애 등에 비판·반대  
를 금지시키는 것은 명백하게 혐  
오와 차별을 부추키는 것으로 사  
회를 유지하는 기본 윤리를 파괴  
하는 행위"라며 진행 중인 2022  
년 개정 교육과정 폐지 주장을 분  
명히 했다.

특히 "2022 교육과정 개정을 즉  
각 중지하고 균형잡힌 새 집필진을  
구성할 것"도 요구했다. "만약 이같  
은 위헌·위법·반윤리적 개정을 추  
진할 경우 한국기독교계는 물론 국  
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며 윤  
대통령과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에 경고했다.

또 개정 교육과정에는 "기독교  
는 종교인 수가 국내 20%(통계청  
2015년)가 넘는 근현대사에 큰 영  
향을 미치고 있는 거대 종교인데  
도 겨우 2페이지 분량으로 기술한  
반면 0.4%에 불과한 이슬람을 18  
페이지 분량으로 과대 기술한 것은  
교육차원의 형평성과 합리성에도  
반하며 종교 탄압을 의도한 것이  
다"며 개정 교육과정 폐지 주장을

이어갔다.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는 정치권  
비판도 보태졌다. 이들은 "특히 개  
정 교육과정은 특정 정파를 지지하  
는 세력으로 학생들을 키우기 위한  
의도가 포함된 것과 학생들을 문화  
혁명의 홍위병으로 키워 우리 사회  
체제를 바꾸고 자신들의 정치 세력  
확장을 도모하려는 우려가 있다"면서  
문재인 정권(민주당)을 겨냥해 이  
날 성명서에도 나타났다.

포항, 구미, 경산, 영천등에서 학  
부모들도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했  
다. 영천시지역 학부모 김00씨(여, 48  
영천시 야사동)씨는 "우리 지역 교  
계 뿐 아니라 각 지역 학부모까지  
교육과정 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  
을 위해 지속적으로 2022 개정 교  
육과정이 폐지될 때까지 이들 단체  
와 함께하겠다"며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11월 9일 행  
정 예고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을  
12월 5일 국가교육위원회로 회부  
해 최종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김효정 기자

# 제5회 노계문학 전국 백일장 대회 일반부 윤원섭·권순이 '대상'

### 학생부 대상, 수필부문 경산 평산초 이수민 양의 '친구' 일반부(584) 학생부(284) 총 868편 접수, 수상자 73명

제5회 노계문학 전국백일장 대회에서 한시 부문에 윤원섭(서울) 씨의 '축 노계 선생 문학관 준공'과 수필 부문 권순이(대구) 씨의 '학생 선생'이 일반부에서 대상을 받아 경상북도지사상을 받았다.

또 학생부는 수필부문에서 이수민(경산 평산초) 양의 '친구'가 대상의 영광을 안아 대구대학교 총장상을 수상했다.

경북 영천 사)노계박인로기념사업회(이사장 김일홍)는 12일 영천 시민회관에서 '제5회 노계문학 전국백일장 대회' 시상식을 개최하고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전국 백일장은 전국 일반부(일반, 대학생)와 학생부(초, 중, 고 등학생)를 대상으로 일반부 584편과 학생부 284편 등 총 868편이 접수 됐고 한시, 가사, 시조, 시, 산문,



수필 6개영역에서 심사해 수상자는 대상을 비롯해 최우수, 우수 등 총 73명이다.

노계 박인로(1561~1642)는 송

강정철(1536~1593), 고산윤선도(1586~1671)와 함께 우리나라 시가(詩歌)문학의 3대 작가로 평가 받고 있다. 조선조 가사문학(歌辭

文學)으로 우뚝 선 공의 휘는 인로(仁老) 자는 덕옹(德翁) 호는 무하옹(無何翁)이다.

박한우 객원기자

## “사라진 말(馬) 그림을 찾습니다”

해외 키르키즈스탄의 大作 키르키즈스탄 총무처장관이 2010년, 영천시장에 기증



2012년 영천시가 키르키즈스탄 정부로부터 기증받은 말(馬) 유화 그림이 사라진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받고 있다.

2012년 당시 영천시가 해외농업개발사업 일환으로 대규모 감초 농장을 개척하기위해 키르키즈스탄에 갔을 때 키르키즈스탄 총무 처장관이 영천시에 기증한 선물로 파악되고 있다.

그림의 규모는 실내 한쪽 벽면을 장식할 크기의 대작이며 두루마리 형태로 국내에 들어온 중앙아시아 초원을 달리는 명작이라는 것(사진) 이같은 사실은 영천시농업기술 센터 정재식 전 소장이 13일 자신의 SNS(페이스북)에 "잃어버린 말(馬)을 찾는다"는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정 소장의 폐복에 따르면 해당 유화 그림(麻)은 키르키즈스탄의 피카소로 불려질 만큼 저명한 작가의 그림이며, 말의도시 영천을

위해 직접 그려서 기증받은 그림으로 전해진다. 당시 정 소장은 전시할 공간이 마련될 때까지 농업기술센터서 보관하기로 하고, 경마공원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 그림 보관시기도 길어지면서 그 사이 그림이 사라졌고 자신도 퇴직해 버렸다고 적시했다.

정 소장은 또 오늘(13일)이 꼭 그림을 받은 날로 꼭 10년이 된다고 해 그림은 당시 김 전 시장과 정 소장 등 일행이 해외 감초 농장 개척을 위해 키르키즈스탄을 다녀온 2012년 12월 13일 즈음으로 추정된다.

한편, 이와 관련해 농업기술센터 한 관계자는 "4~5년 전 즈음 당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해당 그림을 승마장에 걸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흐지부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장지수 기자

## 영천소방서, 경북 소방장비관리 '우수기관' 선정

### 완벽 소방장비 유지관리

영천소방서(서장 김용태)는 지난 8일 경북 도내 소방관서 소방장비관리상태 확인결과 상위 5개 관서에 선정돼 우수관서 시상을 받았다.

이번 장비관리 확인점검은 지난 9월 21일부터 11월 2일까지 도내 21

개 소방관서 및 소방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점검 결과 문경소방서가 최우수 소방관서, 영천소방서와 영덕소방서가 우수, 장려는 구미·경산소방서가 각각 선정됐다.

이같은 소방장비관리상태 확인 점검은 매년 도내 소방관서의 소방차량, 호흡보호장비, 구조·구급 장비에 대해 운용자의 조작능력



과 장비관리 상태를 점검해 완벽한 소방장비 유지관리와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해 실시한다.

장지수 기자

## 독도 알리기 1인 1외교관 되기 독도 다짐식

### 영천교육지원청 주원영 교육장 독도 가치 재조명 "독도 내꺼하자"

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주원영)은 13일 중앙현관에서 직원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독도를 사랑하기 위한 독도 다짐식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직원 한사람 한사람이 모두 독도를 바르게 알고 세계에 알리는 1인 1외교관이 되자는 일환으로 독도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독도의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한 행사다. 교육청은 또 독도사

랑의 의미를 더해 11월 30일부터 '독도로션 바르기', '사이버독도학교 수료하기'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교육청은 '사랑해요 독도', '독도 짱', '독도 내꺼하자', 대한민국의 자랑 독도', '격하게 애정한

다 독도',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우리 독도', '독도는 태초부터 우리 땅' 문구의 내용과 손피켓으로 독도사랑을 각인시켰다.

이번 독도 다짐식은 매년 하지만 올해 교육청은 지난 10월 25일 독도의 날 바쁜 업무관계로 다짐식 행사를 갖지 못하다 이날 실시한 것.

김효정 기자



13일 영천교육지원청 중앙현관서 가진 '독도 알리기 1인 1외교관되기 독도 다짐식'(사진=영천교육지원청 제공)

넓은 실내  
깨끗한 주방  
아늑한 조경

# 한그릇의 만족

자연과 함께 식사 후 야간 강변 산책도 가능한 아늑한 국밥집  
**“최고의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영천시 고경면 단포 구보길 43-6 (054) 333-4710 한그릇의만족 대표 탁기만

# 농어촌公영천시, 북안 도유리 취약지역생활여건 개조사업 완공

총 사업비 17억원 영천시 수탁사업, 착공 4년만에 5일 준공식

영천시 북안면 도유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공사 4년만에 완료됐다.

한국농어촌공사 영천지사(지사장 이광우)는 지난 5일 영천시로부터 지난 2019년 수탁받은 17억원 규모 도유리 취약지역생활여건 개조사업이 공사 착공 4년만인 이날 준공식을 가졌다.

이번에 준공한 취약지역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슬레이트 지붕개량, 노후 집수리, 빈집 철거 등 노후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공사는 이번 사업에 담장 정비, 마을쉼터 조성, 마을안길 확장, CCTV 설치 등 농어촌 지역의 안전·위생,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주민공동시설 정비,

주민여량 강화 등을 추진해왔다.

영천지사는 또 이 외에도 금호읍, 자양면, 신녕면 등 6개 읍·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수탁받아 추진중이다.

지사 관계자는 "재해위험저수지, 생산기반정비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주민 생활편의 증진은 물론 활성화 도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지수 기자



도유리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준공식

# 경북 영천 도남동 폐기물소각장 또 화재... 폐기물 1천톤 불 타

공장내부 가연물질이 많아 완전 진화까지 이틀 걸려

지난 4일 오후 1시 3분 영천시 도남동 214-1번지 (주)S환경(쓰레기 소각시설)에서 원인을 알수없는 화재가 발생했다. S환경은 구 네비엔에서 상호를 변경했다.

불이나자 영천소방서는 이날 오후 1시 20분 대응1단계를 발령해 50명의 소방인력과 굴삭기 4대, 소

방차 등 32대의 장비를 동원해 큰 불을 잡았다. 오후 2시부터는 약식 통제단 변경 가동, 소방서장과 소방본부 특구단이 도착해 진두지휘에 나섰다.

S업체는 2009년부터 영천시 생활폐기물을 전량을 위탁받아 한 해 약 2만2천t, 하루 평균 60t 정도의 폐기물을 소각 처리하고 있다.

이곳은 소각시설 2급대상물로 현재 공장내부에는 가연물질이 다

량 야적되어 있고, 지난 2015년 9월에도 비슷한 화재가 발생한바 있어 이날 화재의 완전 진화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것으로 소방 당국은 보고 있다.

화재 당일 회사 관계자 박 모씨는 소방직원과의 대화에서 "폐기물 보관장에서 최초 연기가 났으며 초기 진화를 위해 자체 설치되어있는 물대포를 쏘았지만 연기때문에 중단했다"고 말했다. 장지수 기자



# 경북 영천, 1일 한약재 창고에 불

약재 창고 3동 태우고 인명피해 없어

경북 영천시 화산면 삼부리 한한약재 창고에서 지난 1일 화재가

발생해 1시간 30분가량 창고 등이 불에 탔다.

영천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불은 오전 11시35분쯤 신고를 접수 받아 한약재 창고 3동과 약재 등을

태우고 오후 1시쯤 진화됐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영천소방서는 소방인력 54명(소방44, 경찰8, 헌전2)과 소방차량 22대를 동원해 오후 1시쯤에 불을 껐다. 소방서와 경찰 당국은 창고 주인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액 등을 파악하고 있다. 김효정 기자



# 영천, 병원·요양시설 등 코로나19 집단감염...수 개월째 이어졌나?

지난 4월 지역에 수백명 집단감염 있어도 시민은 몰랐다. 市당국, "A요양원 집단감염, 전파 경로·원인 파악 어려워" 의료전문가 "보건당국·병원·시설 등 방역 조치 느슨한" 탓 영천, 현재도 코호트 격리시설 있지만 방역당국은 쉬쉬~

영천의 한 (A)요양병원에서 이달 초 30여명이 넘는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인되면서 방역당국과 병원 및 집단시설 등 총체적 방역 부실 지적과 함께 지역에서의 대량 집단감염 현황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지난 12일 영천시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지역 한 요양병원 입원환자 및 병원 종사자 등에서 11월부터 동시 다발적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확진자 수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본지 확인 결과 해당 요양 병원은 올해 6월 오픈해 지난 11월 10일 최초 확진자가 나오면서 14일 현재 확진자가 40여명에 이르

는 것으로 파악됐다. 60여명의 종사원과 90여명의 입원환자 등 모두 150여명 이상이 이 요양원에 근무 또는 입원 중이다.

13일 방역당국 따르면 A요양원의 경우 입원 환자들이 집단감염되고 시설 종사자의 지속 확진이 아니어서 시설에 대한 코호트 격리 대상에서는 피해간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A요양원 자체에서 코호트 격리수준으로 대비하고있는 것으로 방역 당국은 파악하고있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확진된 90대 여성 입원환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 4일여 만에 숨지면서 병원과 유족간 사망 원인 등을 둘러싼 다툼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환자 가족을 포함한 외부인 출입이 제한된 상황에서 집단감염이 계

속되자 영천시 보건당국과 병원 측의 방역 조치가 느슨해진 탓이란 지적이다.

그러나 병원 관계자는 지역 일간지와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사망 환자 역시 기저질환자로 코로나로 숨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본지 취재결과 일단 사망자에 대한 의사의 사망진단은 병사인 것으로 분석됐다.

영천시 방역당국도 "A요양병원의 집단감염 경로와 원인 등에 대한 역학조사는 힘든 상태"라며 "지난달 9일부터 가족 면회 중지를 포함한 방역 강화 조치를 내렸다"고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다만 해당 요양병원 관계자는 본지와와의 전화 질문에는 내용을 파악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이다.

한편, 14일 현재 영천시는 620명이 코로나19 검사 중이며 이날 06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53명이다. 또 지금까지의 누계확진자는 4만



4874명으로 이 중 사망자는 53명(누계), 퇴원환자는 3만9748명(누계)이다.

또 올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영천에서는 대량 집단감염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익명을 요구한 병원 한 관계자는 지난 4월 수백여명의 입원환자 모두 감염된 경우도 있었고, 지금도 한 병원에는 코호트격리가 발효되어있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지역에서 집단감염이 대량으로 쏟아졌던 것으로 파악되는 대목이다.

이번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본지 의료 자문을 담당하고있는 의료전문가는 "최근 시민들도 코로나19에 무관심해 진데다. 정부 역시 곧 마스크 해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면서 "감염자 숫자가 줄지 않는 이유는 그 사이 병원이나 시설 및 방역당국 역시 코로나19 확진자 숫자 조작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잠재적 실제 감염자가 숨어 있고, 또 당국의 감염병관리가 느슨해진 탓도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장지수 기자

# 2022년 경상북도 농촌활력 업무평가 우수기관 선정

## 청도군 '대상' 수상 쾌거

김하수 군수, "2년 연속 최고상 수상 직원 노고에 감사"



경북 청도군(군수 김하수)이 농업인력지원·농촌개발 등 농촌신활력분야에서 타 시군에 비해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일 군에 따르면 지난 6일 경상북도 주관 '2022년 농촌활력분야 평가'에서 "청도군이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최고상을 수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군은 일반농산어촌개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3개 지구(화양, 각북, 이서),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3개 지구(각남, 운문, 매전), 마을만들기사업 7개 지구(온막리, 문수리, 소라리, 고평리, 흥선리, 두곡리, 지슬리), 취약지역생활여건 개조사업 2개 지구(각남, 매전) 를 추진했다.

이들 추진사업 중 군은 올해 안에 이서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매전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마을만들기사업(7개소) 완료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군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한 2021년 농촌협약 대상 시군으로 선정되어 5년간(2022~2026년) 국비포함 387억원을 지원받아 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 시군역량강화 등 지자체에서 수립한 계획을 추진해 농촌 정주여건 개선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방침이다. 장지수 기자

## 안동시 '최우수상' 영예

농촌인력·기반조성 등 농촌활력 증진 인정 받아



안동시(시장 권기창)는 지난 6일 도내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2022년 농촌활력 업무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경북도 농촌활력 분야 평가는 경북 22개 시·군 및 17개 농어촌공사(지사)를 대상으로 국유재산·농업인력지원·농촌개발·기반조성분야 등의 주요 업무추진에 대하여 점검·평가해 우수한 시군의 사례를 발표하고 이를 격려하는 자리다.

안동시는 △농촌인력 공급서비스 △국민참여형 일손돕기 △농촌지역개발사업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 등 농촌활력 증진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시는 올 한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3개 지구(녹전면, 서후면, 남후면), 마을만들기 사업 4개 지구(예안면 귀단2리, 임하면 임하2리, 일직면 망호3리, 풍산을 매곡1리),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2개지구(서후면 대두서리, 일직면 귀미1리) 신활력플러스사업을 추진해 왔다.

또 시는 용·배수로 정비 및 양수장 정비, 노후위험저수지 정비, 농사용 암반관정 개발 등의 사업도 완료했다. 장지수 기자

## 영천시 '우수상' 수상

내년 38억 규모 화남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선정



영천시는 6일 경상북도에서 실시한 '2022년 농촌활력 업무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경북도 주관 농촌활력분야 평가는 경북 22개 시·군 및 17개 농어촌공사(지사)를 대상으로 국유재산·농업인력지원·농촌개발·기반조성분야 등의 주요 업무추진에 대하여 점검·평가해 우수한 시군의 사례를 발표하고 격려하는 자리다.

영천시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3개 지구(금호읍, 화북면, 자양면), 기초생활 거점조성사업 3개 지구(청통면, 신녕면, 임고면), 북안면 도유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추진 해 오고 있다.

올 7월에는 2023년 신규 사업으로 38억 규모의 화남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또한, 2023년에는 국비 300억 규모의 농촌협약 공모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공모사업 이외에도 시 자율사업으로 매년 3개소 이상의 마을 만들기사업과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도 꾸준히 추진하여 농촌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시는 전했다. 장지수 기자

## 경북도·산림청, 동해안 초대형헬기 취항

### S-64 울진 배치, 담수량 8천리터

경상북도와 산림청은 13일 경북 울진에 담수용량 8000리터, 1회 진화면적 2400㎡(720여평)규모 초대형 산불 진화용 헬기(S-64)를 배치해 이 날 취항식을 가졌다.

경북지역에는 올 봄 국내 산불발생 중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울진·삼척 산불(울진 1만4140ha)을 비롯한 6건의 대형 산불이 발생했다. 기후변화 등 영향으로 산불이 대형화하고있는 데다 산불 대비를 위한 대응역량 강화 차원의 대응용 헬기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었다.

이 날 취항한 산림청 초대형 헬기는 미국 ERICSON Air-Crane사가 제작한 S-64E형으로 이같은 헬기를 산림청은 7대를 보유하고 있고, 경북도는 별도로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에 17대의 임차헬기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초대형헬기의 울진지역 배치로 도내 산림청 산불헬기는 초대형 2대, 대형 5대(안동산림항공관리소 초대형 1대, 대형 3대, 울진산림항공관리소에 초대형 1대, 대형 3대)로 늘어난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번 초대형 헬기 울진 취항으로 동해안 지역의 공중진화역량이 강화돼 산불의 초기대응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김효정 기자



## 대구대 이근도 초빙교(논문), BRIC '한국을 빛내는 사람들' 등재

### CNTF인자 망막변성 생쥐 모델에서 망막시세포 보호 경로 연구



대구대학교 장파연구원 이근도 초빙교수(사진)가 미국 UCLA 의대 안과에서 연구해 발표한 논문이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의 '한국을 빛내는 사람들(한빛사)'에 최근 등재됐다.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는 국내 생명과학 연구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연구정보·커뮤니케이션 웹사이트로, 세계적으로 권위가 인정되는 생명과학 관련 SCI 등재 학술지 중 피인용지수(IF; Impact Factor)가 10 이상인 학술지에 투고한 한국인 과학자들과 그 논문을 소개하고 있다.

이근도 교수의 연구논문인 'Ciliary neurotrophic factor-mediated neuroprotection involves enhanced glycolysis and anabolism in degenerating mouse retinas'는 네이처출판 그룹의 자연과학저널 'Nature Communications(IF 17.694)'에 지난 11월 17일 게재됐다.

이 논문은 CNTF 인자(신경영양인자)가 망막변성 생쥐

모델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 망막시세포를 보호하는지를 초고해상도 현미경, 세포대사, 대사체 분석, RNA 시퀀싱으로 분석한 결과를 담고 있다.

CNTF 인자에 의해서 보호된 망막시세포의 미토콘드리아를 형광 단백질로 발현한 후 초고해상도 현미경으로 3D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미토콘드리아의 형태학적 변화를 발견했다. 또한 세포 대사와 대사체 분석을 통해 세포 내에서 당이 분해되어 에너지를 얻는 해당작용과 고분자화합물을 합성하는 동화작용이 증가함을 확인했다.

RNA 시퀀싱 분석 결과, CNTF 인자가 해당작용 유전자 발현을 증가하는 동시에 미토콘드리아 관련 몇 개의 복합체 유전자(complex gene) 발현을 저하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런 현상들은 암세포에서 일어나는 와버그 효과(Warburg effect)와 유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근도 교수는 "추가 실험으로 이 경로가 죽어가는 신경세포를 보호한다는 것이 입증되면 다른 신경병에도 적용될 수 있고, 특히 CNTF 인자는 당뇨병 질환과 비만 생쥐 모델에서도 혈당과 체중을 저하하는 효과가 있어서 논문의 결과가 타 분야에서도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 경북교육청, 시·도교육청·담당전문직 워크숍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고시 전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간 소통·협력을 위한 '시·도교육청·담당 전문직 워크숍'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교육과정 담당 장학관 및 장학사, 교육부 2022교육과정개정지원팀 담당자 등 90여 명이 대상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시·도교육청의 의견 수렴

및 차질없는 개정 교육과정 현장 도입을 위한 사전 준비 과정이다. 또 앞서 지난달 9일 행정예고된 '2022 개정 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해 후속 지원 방안 협의, 교육과정 및 자유학기 정책 현안 논의를 위한 자리이기도 하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올해 교육과정 개정안은 행정 예고 후 연말에 확정·고시될 예정이며 개정 교육과정 이해 제고와 후속 지원을 위한 안내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효정 기자

# 경북, 상생과 미래를 위한 약속... 대한민국 미래차 부품산업 중심도시로 우뚝

6일 경북 주도 투자일자리, 미래차부품 슈퍼클러스터 조성 협약 2025년까지 5880억원 투자, 약 800명 고용 창출 청신호 경주·영천·경산시, 국내 최대 미래차 부품산업단지 성장 기대 경북도, 경주·영천·경산시, 도 내 자동차 부품기업 10개사 참여 정부 일자리 공모사업 신청, 내년 초 사업 본격 개시 탄력 전망



지난 6일 오후 경북도청 동라관에서 열린 경북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상생협약식. (왼쪽부터) 최기문 영천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주낙영 경부시장, 조현일 경산시장(사진=경북도 제공)>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가 대한민국 미래차 부품산업분야 지방 주도 중심도시로 우뚝 설 전망이다.

도는 기존 내연기관 중심 자동차 산업 구조를 미래 차 부품산업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올해부터 2025년까지 5880억원(이상)을 투자하고, 약 800명의 고용 창출을 목표로하는 미래차 부품산업 슈퍼클러스터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북도는 6일 도청 동라관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지역 핵심 자동차 부품기업 다스, 에코플라스틱, 영신정공, 화신, 신영 등 10개사 대표 및 부품기업 집중 도시인경주·영천·경산시장, 도의회의장과 이정한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경영계, 한국노총 경북

지역본부, 금속노조 경주시지부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경북도는 지난해 미래 자동차 전환 산업혁신 및 일자리 전략을 수립하고, 올해부터 산업전환에 필요한 모든 지원정책을 한 번에 담을 수 있는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해왔다.

경주·영천·경산에 소재한 내연기관 중심 자동차 부품산업 혁신을 위한 미래 차 부품산업 슈퍼클러스터를 조성해 산업 및 노동 전환에 따른 신규 일자리 창출로 국내 미래 자동차산업 부흥에 대한 경북도의 지방주도형 선제적 대응책이다.

이로 인해 도는 지난 6월부터 지

역 노사민정의 사회적 대화와 협약 안 도출을 위해 상생협의회 운영과 상호 협의를 거쳐 투자유치, 인센티브 개발 및 상생 협약안까지 현장의 고민을 녹여낸 경북만의 모델을 완성했다.

특히 경북이 주도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민간중심에 정부 지원을 더한 내생적 지역 발전 모델로 도-경주-영천-경산의 거버넌스와 노사민정의 공동 노력으로 지역혁신 공

동체 형성을 위해 미래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육성이 목표다.

한편, 이번 협약으로 도는 빠른 시일 내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신청서를 정부에 제출해 지역에 미래차 부품 혁신센터, 일자리혁신파크, 글로벌비즈니스지원센터 등을 구축하고 R&D, 생산, 판매 등 분야별 지원정책을 통해 지역기업의 미래 차 부품산업 전환을 촉구시킬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협약은 기존 대기업 지방투자 유치 방식과 달리 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스스로 미래 차 전환 시대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투자와 고용을 결정한 사례이다"면서 "경주, 영천, 경산이 국내 최대 미래 차 자동차 부품 산업단지로 성장하고, 미래 일 자리를 선점할 수 있도록 도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지수 기자

## 도의회 예결특위, 道·도교육청 예산심사 마무리

계수조정, 경북도 28건 27억7820만원, 도교육청 56건 333억9577만원 삭감



경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3년도 경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12일 도의회(위원장 이선희)는 지난 5~9일 까지 5일간 2023년도 경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3년도 경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12일 도의회(위원장 이선희)는 지난 5~9일 까지 5일간 2023년도 경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이번에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예산의 총규모는 경상북도 소관 예산이 12조 821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0조 5111억원, 특별회계가 1조

5710억 원이며,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예산의 총규모는 5조 9229억 원이다.

예산특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예결특위에서 최종 조정·의결된 결과를 살펴보면 경상북도 예산은 총 28건, 27억 7820만원을 삭감해 전액 내부유보에 증액 계상했으며, 경북도교육비 특별회계는 56건, 333억 9577만원을 삭감해 전액 예비비에 증액 계상했다.

김효정 기자

## '재경청도군향우회 70년사' 출판기념회 개최

이만희, 김하수, 김효태, 군·도의원 선출직 대거 참석

재경청도군향우회(회장 이윽기) 70년사 출판기념회 및 2022년 정기총회가 지난 2일 서울 영등포 공군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수도권 향우들은 물론 김하수 청도군수와 이만희(영천-청도) 국회의원, 김효태 군

의회 의장을 비롯해 지역 군·도의원 및 각 읍면장 등 4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고 지난 5일 향우회가 밝혔다.

재경청도군향우회 70년사에는 1954년 창립부터 현재까지 청도에서 상경한 출향민들의 희노애락과

힘난한 발자취 및 업적을 600페이지에 담았다.

이윽기 재경청도군향우회 회장은 "선배 향우님과 많은 향우님께서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이룩하신 빛나는 업적의 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재경청도군향우회 발전에 더욱 힘을 쏟겠다"며 약속했다.

김효정 기자



## 아마추어무선연맹 경북본부, 긴급재난통신지원단 워크숍

김남일 환동해지역 본부장 저서 「독도 7시 26분」 특강

사)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경북본부(본부장 김종팔)는 지난 11일 영천시 화남면 다목적회관 대회의실에서 긴급재난통신지원단 워크숍을 개최하고 재해발생시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했다.(사진)

이날 워크숍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경북지역 동·서·남부지역대 대원(회원) 70여명이 하루 종일 통신지원단의 임무, 재난통신망 안정적 운영관리, 통신 훈련 및 비상무선 통신망 확보방안 등 예기치 못한 대형 재난에 대비한 역량 강화 훈련이다.

앞서 사공문상 직전 본부장의 긴급재난통신지원단임무 특강에 이어 진행된 개회식에는 지역 이만희 국회의원 보좌관을 비롯해 윤승오 경북도의원, 이영기·이갑균 시의원이 직접 행사장을 찾아 국가 재난시 아마추어무선의 긴급통신 중요성과 지원방안을 논의해 환영을 받았다.

특히 경북도에서는 윤병기 안전정책과장 일행이 직접 워크숍 현장을 찾아 무선통신 장비와 위

크숍 관련 프로그램을 살피고 관계자들과 재난통신의 신속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이날 재난통신의 핵심 기술인 안테나 설비 구축을 위한 마스타봉 설치 시범 교육 및 실습에 앞서 김남일 환동해지역본부장(경북도 동부청사)이 자신의 저서 '독도 7시 26분'에 대한 독도수호의 중요성과 독도가 국토 영토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특강을 실시했다.

(재)독도재단은 2009년 '안용복 재단'으로 출범해 현재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이사장으로 이날 특강을 실시한 김남일 환동해지역본부장이 부이사장으로 있다.

이날 워크숍에 코로나19 확진으로 참석하지 못한 김종팔 본부장을 대신해 구성일 부분부장은 "앞선 이태원 사고에서도 휴대폰이 무용지물이었다"면서 재난 발생시 통신 두절로 인한 아마추어무선의 중요성이 드러났다"고 밝히고 "우리 아마추어무선연맹 회원들이 투철한 희생정신으로 무장해 국가와 사회에 진정한 봉사자가 될 수 있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장지수 기자



# 경북교육청, 봉계·풍북·당포·대동·은풍 5개 초등학교에 작은학교 인증

‘2022학년도 ‘작은 학교 살리기’ 성과 보고 ‘꿈키움 작은학교 인증제’



작은학교 인증을 받은 김천 봉계초, 안동 풍북초, 문경 당포초, 경산 대동초, 예천 은풍초등학교와 임종식 인종에서 세 번째) 교육감(사진=경북교육청)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지난 1일 안동국제컨벤션센터에서 ‘2022학년도 작은 학교 살리기 성과 보고회’를 개최하고 경북 도내 김천 봉계초, 안동 풍북초, 문경 당포초, 경산 대동초, 예천 은풍초 등 5교를 올해 우수학교로 인증했다.

작은 학교 인증은 학생수 증가율, 언론 홍보 실적, 사업 추진 충실성 및 적절성, 학교장 의지 및 구성원 참여도, 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 특색사업, 외부재원 확보와 지역사회 협력 등을 심사해 우수학교

를 선정한다.

특히 ‘꿈키움 작은 학교 인증제’는 농어촌 소규모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으로 학교 운영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우수학교를 발굴해 인증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0년부터 시행해 왔다.

이날 보고회는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작은 학교 가꾸기, 경북형 공동교육 과정 운영 학교장 등 150여명을 대상으로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유도하고, 우수사례 발굴 및 프로그램 공유를 통한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의 활성화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경북교육청은 지난해까지 도내 10개 학교를 우수학교로 인증했으며, 올해는 이같이 5개교를 인증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소규모 학교는 미래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다”면서 이번 작은 학교 인정으로 학교는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보고회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김효정 기자

# 생산 3배 높이는 딸기 수직재배 시스템 특허... 태광에이텍에 기술 이전

기후 걱정 없는 육묘 장치 포트... 실용성 높아  
신용섭 경도 농기술원장-곽원표 태광에이텍 대표

경북농업기술원이 기존 재배보다 수확량을 3배 이상 높일 수 있는 특허기술을 개발했다.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은 지난 2일 딸기 수출농업기술지원단(단장 변미순), 경북딸기수경재배연합회(회장 김상호) 회원, 도의원 등 지역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해 딸기 생산시스템 개발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성과보고회에서 기술원은 이날 기존 재배방식 보다 생산성을 3배 이상 높일 수 있는 수직재배 3단설치 시스템 현장 평가를 진행해 이용 효율을 높여 노동력은 줄고 수확량은 증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딸기 수직재배 시스템」은 수직재배 용기를 3단으로 설치하고 무선통신 기반 센서 기술을 이용해

자동으로 수분과 양분을 공급하기 때문에 기존보다 3배나 많은 딸기를 수확할 수 있다.

또 개발된 「딸기 기능성 육묘포트」로 고온피해방지를 통해 우량묘를 생산이 가능해 농업기술원은 초기 설치비용을 첫 해에 회수 가능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기술원은 「고온피해를 방지하는 기능성 육묘포트」 특허를 태광에이텍(대표 곽원표)에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앞서 영천시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예산 200억원으로 2023년까지 북안면 소재 아열대 작물 스마트팜 단지와 올해 1월에 선정된 금

호읍 과채류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총 2곳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효정 기자



# 경북교육, 2023년 공·사립 초등교사 임용시험 제1차 합격자

유치원 69명, 초등학교 478명, 특수학교(유·초) 29명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지난 12일 ‘2023학년도 경상북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제1차 합격자 및 제2차 시험 시행계획’을 12일 공고했다. 제1차 시험 합격자는 과목별 만

점의 40% 미만 득점자를 제외한 유치원 69명, 초등학교 478명, 특수학교(유치원) 6명, 특수학교(초등) 23명 등 총 576명이다.

제2차 시험은 2023년 1월 4일부터 1월 6일까지 3일 간 경상지역 성암초등학교, 정평초등학교에서

실시한다. 1일 차는 교직적성 심층 면접, 2일 차는 교수·학습과정안 작성 및 수업실연과목, 3일 차는 초등교사만을 대상으로 영어수업 실연과 영어면접을 실시한다.

최종합격자는 2023년 1월 27일(금) 경상북도교육청 누리집(www.gbe.kr)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장지수 기자

# 경북교육청, 평화·통일교육 성과 나눔

운영사례 발표 및 공연관람

개최했다.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지난 2일부터 2일간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한 해 동안 민주시민교육, 평화·통일교육을 실천한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60여명을 대상으로 성과 나눔회를

성공 나눔회는 민주시민교육, 평화·통일교육 관련된 학습공동체, 동아리, 연구학교, 현장지원단, 앱 개발 등의 운영 사례 발표와 분임 토의로 정보 공유를 하고 통일의 노래 등을 관람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김효정 기자

# 경북교육청, 17개 시·도교육청 담당 전문직 워크숍

교육부와 2022 개정 교육과정 소통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지난 5일부터 양일간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고시 전에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간 소통과 협력을 위한 ‘시·도교육청 교육과정 담당 전문직 워크숍’

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과정 담당 장학관 및 장학사, 교육부 2022교육과정개정지원단 담당자 등 90여 명을 대상으로 특강, 분임 토의(3회) 등을 통해

2022 개정 교육과정을 깊이 이해하고, 시·도교육청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정보를 교환했다.

또 앞서 지난달 9일 행정예고된 ‘2022 개정 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해 후속 지원 방안 협의, 교육과정 및 자유학기 정책 현안 논의했다.

개정안은 행정 예고 후 연말에 확정·고시될 예정이며 개정 교육과정 이해 제고와 후속 지원을 위한 안내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심도 있는 분임 토의를 펼쳤다.

이후 고시에 따라 교육과정 총론 및 교과 교육과정에 대해 현장 이해 제고 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대해 현장 지원하고 이에 앞장설 계획이다. 김효정 기자

# 경북교육청, 학교생활 회복 위한 전문가 양성

학교 생활교육 선도  
화해 지원단 21명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지난 10일 김천 학생문화예술센터에서 학교폭력 등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정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을 위해 ‘2022학년도 관계 회복 및 화해조정 지원단’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국평화교육훈련원의 전문 강사를 초빙해 ‘회복적 정의 이해와 실천으로서의 조정’이란 주제로 회복적 생활교육 사례, 필요성, 공동체 내 갈등에 대한 내용 등으로 생활교육 요령 연수가 진행됐다.

교장, 교감, 수석교사, 교사로



구성된 관계 회복 생활교육 선도 지원단 13명과 전문상담교사 8명의 화해조정 지원단으로 총 21명이 대상이다.

최근 학생 생활교육은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가해자를 바로잡는 것’에서 ‘자발적 책임을 통해 잘못을 일으킨 피해를 회복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으로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다.

김효정 기자



# 영천신문이 선정한 2022년 주요 10대 뉴스

『보태지도 빼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를 기치로 지역 대안언론을 자처했던 영천신문이 올 한해에도 독자들로부터 기다려지는 신문으로 각인되고 있다. 권력과 자본에 굴하지 않고 오직 독자들의 알권리와 지역 발전을 위해 뚝뚝뚝 기사를 걸어오면서 지난 11월16일로 벌써 창간 11주년을 맞았다. 올바른 사회상과 권력과의 견제를 위해 5년 가까이 영천시와 각을 세우면서도 구독과 취재거부당하는 일을 겪고도 가감없이 할말은 하는 언론상을 적립한 또 새로운 한해를 넘겼다. 매년 새해만 다가오면 한 해의 열록은 지우고 과감하게 털 것은 털고 희망을 다시 깨우는 일상이 반복되지만 지난 년초에는 일시 발행을 중단했던 아픔도 남는다. 오라는 곳 없어도 갈 곳이 많은 것이 기자라는 직업이지만 좀 더 발로 뛰지 못한 것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아쉬움이다. 다시 임인년(壬寅年)을 뒤로하고 계묘년(癸卯年)을 맞이하면서 지난 1년 동안 영천신문을 통해 핫이슈가 된 뉴스 10편을 본지 인터넷신문(영천투데이) 독자 조회수와 편집회의를 거쳐 선정해 다사다난했던 영천신문의 1년을 뒤돌아본다. 본지 논지를 반영해서인지 본지 선정 10대 뉴스가 대부분 어두운 단면 일색인 점이 아쉽다. <편집자 주>

[2022-07-14 343호 2면]

## ① 영천시 야사동 Y경로당 L회장·A부회장, 보조금 '부당사용'과 '착복(횡령)의혹'

경북 영천시 망정동 Y경로당 일부 임원의 보조금 '부당사용'과 '착복(횡령)의혹'이 불거졌다. 그런데 영천시가 이같은 사실을 덮거나 축소하려는 의혹까지 겹쳐지면서 민원인들의 불만이 높다.

특히 보조금의 '부당사용'과 '착복(횡령)의혹'을 받고 있는 경로당 L회장과 A부회장의 가족이 각각 공공기관 간부(명퇴 중)와 전직 영천시청 국장(퇴직)으로 알려지면서 "영천시가 의도적으로 금액을 축소·은폐해 면죄부를 주려는 것"으로 의심받고 있어 "경찰에 수사 의뢰하여 보조금의 투명한 사용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22-09-15 347호 4면]

## ② 영천시체육회 소관 시민체육대회 예산 전액 삭감 논란

영천시의회(의장 하기태)가 올해 시민체육대회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 영천시체육회(회장 박봉규)가 13일 의회를 방문해 규탄 성명을 발표하는 등 의회와 충돌했다.

박봉규 체육회장은 이날 오전 9시 의회가 개원(제2차분회의)하기 전 지역 각읍면동 체육회장들을 소집해 의회를 항의 방문하고 "코로나로 개최를 하지 못하다 3년만에 찾아온 대면 시민화합체전 예산을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한것은 시체육회 및 시민의 뜻을 저버리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고 시민위에 군림하는 행위로 의회는 각성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2021-12-09 337호 2면]

## ③ '최기문 영천시장, 노계(박인로)에 발길 끊었다. 행사에 한번도 참석 안 해'

"영천시가 공(功)·사(私)를 구분하지 못하고 특정 단체만을 타겟으로 의도적 차별행정을 가한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최기문 영천시장이 개인 감정을 앞세워 보복하는게 아니라면 공무원이 특정 공익사회단체에 이같이 악랄한 차별행정을 할 수 없을 것이다"며 한 문화단체가 강하게 반발해 귀추가 주목된다.

[2022-06-03 340호 1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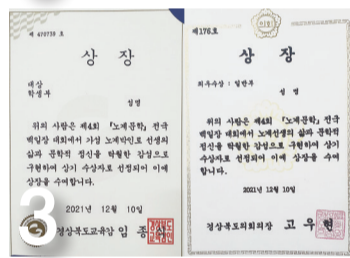
## ④ 6.1지선 영천시장, 무소속 최기문 53.43% 재선 성공...국민의힘 박영환 43.80%, 격차 9.63%p

6월1일 치뤄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지역에서는 국민의힘 이철우 경북도지사 후보가 77.95%를 득표해 압승하고, 임종식 道교육감 후보는 49.77%를 득표해 재선에 성공했다. 무소속 최기문 영천시장 후보가 26,881표(53.43%)를 얻어 22,034표(43.80%)를 득표한 국민의힘 박영환 후보를 9.63%p차로 따돌리고 영천시장 첫 무소속 재선에 성공했다.

[2022-05-19 339호 3면]

## ⑤ "육아지원센터 조기설립,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영천만들기"

오는 6.1지방선거에서 영천시의 주요 현안 중 저출산 극복을 위한 아이키우기 좋은도시 만들기 공약을 제시한 후보가 있어 본지



가 단독 특별 인터뷰를 요청했다. 그동안 영천시가 인구증가를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지만 2022년 4월말 현재 영천시 인구는 오히려 2018년 연말 보다 103명 줄어든 101,492명을 기록했다.

[2022-06-16 341호 5면]

## ⑥ 영천, 자동차부품산업 대변혁 예고...내연기관서 미래 차 부품산업 구조 변경

경상북도가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부품산업구조를 미래차 산업구조로 대 전환을 시도하고 있어 지역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



가 예고된다. 특히 경산시와 영천시, 그리고 경주시에는 모두 1,414개의 자동차 부품산업이 국내 부품의 13.7%를 차지하고 있어 빠른 미래차 산업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경북도의 자동차 산업구조 대전환 시도가 주목받는 이유다.

[2022-09-29 348호 1면]

## ⑦ 영천경마공원, 유치 13년만에 드디어 첫 삽...30일 1단계 건설공사 기공식

서울, 제주, 부산경남에 이어 국내에서 네 번째 경마장인 영천경마공원이 드디어 30일 오후 2시 첫 삽을 뜬다. 2009년 첫 유치로부터 13년 만이다. 그동안 조성 여·부를 놓고 정부와 마사회에 대한 비판도 없지 않았다. 이번 기공식으로 착공 여·부 논란에도 종식을 고하게 된다.

[2022-06-16 341호 2면]

## ⑧ 영천시 야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또 다시 좌초 위기...동부동사무소이전 공약 표류

영천도시계획 야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또다시 중단 위기에 처했다. 따라서 2009년부터 논의됐던 영천시 동부동사무소(주민복지센터) 이전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7일 야사택지지구 조합과 관계자 등에 따르면 사업시행 대행사의 실질적 대표 A씨(51)가 지난 6월 9시경 오미동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 오늘(7일)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놓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2022-06-30 342호 9면]

## ⑨ 영천시의회 현직 4선의원 B씨, 사건 재점화...검찰의 무혐의 처분 후 기자회견

지난달 5월26일 영천시의회 간담회장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기자회견까지 했던 지역 4선 B시의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의사건이 재정신청으로 다시 재점화되고 있다.

[2022-01-10 영천투데이]

## ⑩ [고발기사] 영천시·시노조, 시장 비판 언론에 '언론탄압' 논란

영천시가 시장을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한 언론사에 구독·취재 거부 및 보도자료 제공·행정광고를 금지하여 언론탄압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상기 10대 뉴스 외에도 본지 핫 이슈로 떠오른 기사들

## ⑪ 경북 영천시 고경면시장협회의장, 3연임 시도...市연합회장 욕심 있나?

[2022-01-04 영천투데이]

## ⑫ 영천, 철도건설목 무궁화 열차-1톤 트럭 충돌...80대 2명 사망

[2022-02-03 영천투데이]

## ⑬ 영천 보현산댐 짚와이어 사고...14세 탑승객 두 시간↑ 공중 매달려

[2022-01-07 영천투데이]

## ⑭ 박영환-최기문 두 후보 표차...2.8%p 초박빙-나홀만에 15.1%p 벌어져 여론조사 의혹

[2022-06-03 지면 340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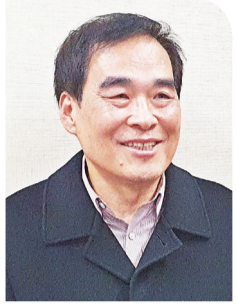
## ⑮ 야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K씨 사망 후 조합 내부 내용 격화...재추진 어두운 그림자

[2022-08-11 지면 345호]



임종택의 『숲과 人間』

# ① 자연 환경 이용한 면역력 증진과 팬데믹 이후 뉴노멀 라이프



임종택

### ■ 人間이 부른 탐욕

세계는 지금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22년 12월 현재 확진자만 6억 5천만 명, 사망자는 무려 6백6십5만 명으로 추산된다. 한국의 경우도 2700여만 명이 확진되고 3만 1000여 명이 사망했다. 전례없는 바이러스에 공격을 당하고 격리라는 극단 처방으로 개인의 삶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특히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사는 업종의 특성상 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다만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 능력이 약화되고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예방 접종에 힘입어 거리두기 제한 해제, 실외마스크 해제 등의 조치로 그나마 숨통이 트이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강제격리 등을 통해 개인의 삶의 질이 극도로 저하해 코로나블루(코로나로 인한 우울증), 코로나레드(지구적 경고) 라는 신조어가 생겨나기도 했다.

개인적으로는 우울증과 무기력 불안 공포 스트레스 분노 짜증 두통 소화불량 등 매우 복합적인 심리적 변화들은 국민이 겪기도 했다. 향후 이러한 바이러스의 습격은 언제든지 다시 나타날 수 있고 수많은 사람들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 물론 지난 세기 동안 천연두(완전 멸종)나 사스, 메르스, 지카바이러스(모기에 의해 감염), 신종플루, 조류인플루엔자, 에볼라바이러스 등 인수 공통 감염을 일으키는 각종 바이러스의 공격은 항상 있어 왔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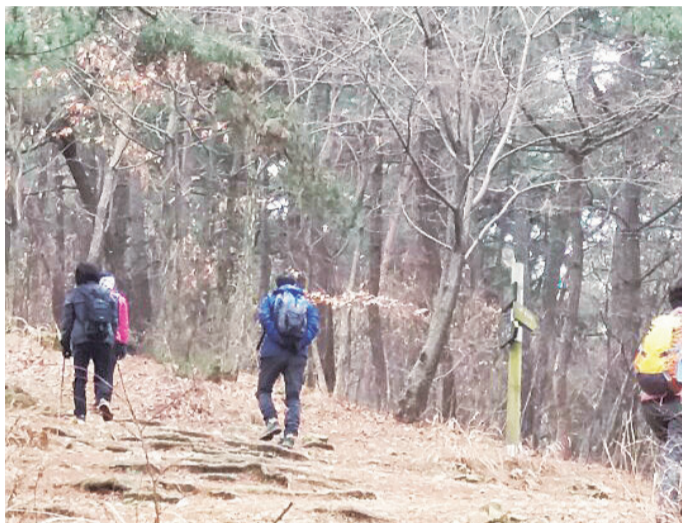
결국 이러한 바이러스의 출현은 그동안 자본주의 산업 사회를 거치면서 한정된 지구의 자원을 무차별적으로 파괴하고 남용한 결과임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개발지상주의 이데올로기는 바뀌지 않고 인간만을 위한 자연 파괴 행위는 지금도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 결과 삶의 공간을 잃은 타 생명의 반격이 시작된 것이다.

먹이 사슬의 최 정점에 있는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코로나 레드라는 지구의 무수한 경고를 인간은 지금도 그 심각성을 제대로 받아들이기를 주저하거나 심지어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간의 욕심이 부른 재앙이 지구 온난화라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구 곳곳에서 끊임 없이 일어나고 있는 각종 기상 재해들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

### ■ 人間の 삶과 면역력

우리는 이제 이러한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삶의 방식을 생태적 삶의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전지구적 위기에 대한 해결책은 국가 권력자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지만 개인의 삶에 대한 변화는 결국 자연과의 교감과 자연을 통해 면역력을 증진하고 일상의 회복탄력성인 리질리언

### 숲은 人間の 면역력을 높여주는 자연매개체 흐르는 계곡물에는 음이온이 많이 존재한다 잘 정리된 조림 숲길, 산림욕장 활용해야 침엽·활엽수의 끊임없는 경쟁과 천이 모습



겨울숲을 찾는 등산객-숲은 우리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자연매개체



물이 흐르는 계곡에는 음이온이 많이 존재한다

스의 증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다. 우선 면역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쉬우면서도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숲으로 되돌아가는 일이다. 숲은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자연의 매체다. 숲은 사막과 달리 많은 물을 저장하고 빛에너지의 저장 창고가 되며 빗물로 인한 기름진 토양의 유실을 방지하고 모든 생물의 생활 터전이 되며 때로는 교육과 휴식의 공간을 제공해주기도 한다.

옛 선조들은 이러한 숲의 기능을 잘 활용해서 마을 인근에 별채나 산림의 이용을 위한 송계산 숲을 조성하기도 했고, 비사나 조풍 파도 등으로부터 가옥이나 농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해안 방풍림을 조성하기도 했다. 경남 남해 물건리에는 조해 방지는 물론 숲으로 그늘을 만들어 고기를 불러들이기 위한 방조어부림을 만들기도 했다.

하천과 하천부지를 보호하기 위한 호안림 등 수많은 다양한 숲을 만들어 생활과 농경에 이용해왔다.

### ■ 숲이 人間에 미치는 영향

숲의 이러한 물리적 기능 이외에도 자연의 숲에서 밝혀진 피톤치드나 테르펜 음이온 등 산림의 화학적 요소를 이용한 면역력 증진 요소들이 많이 밝혀지고 있다. 특히 피톤치드는 식물이 발산하는 항균 및 살균 작용을 하는 모든 물질을 일컫는데 인간의 입장에서 매우 유익한 물질로 작용하고 있다. 테르펜은 숲에 들어가면 기분이 상쾌해지고 향긋한 냄새가 나는 물질로 심신의 진정 효과를 주는 정유나 수지 등을 말한다. 그리고 특히 숲속의 비타민이라고 말하는 음이온은 음전하를 가진 입자로 공기를 정화하고 혈액을 깨끗이 해주며 세포 활성을 통해 저항력을 높여주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이렇듯 숲은 우리 인간에게 수많은 유용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오로지 물질만을 추구하고 소비를 통해 만족하는 삶에서 벗어나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자연 속에서 우리의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 생태적인 삶의 시작이자 근본이 아니겠는가. 우리나라의 숲은 과거 산림 녹화를 했을 때의 모습과는 현재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자연천이라는 시간적 변화 속에서 소나무들이 많이 사라지고 참나무를 비롯한 활엽수가 득세하는 산림으로 점점 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피톤치드나 테르펜류는 소나무를 비롯한 침엽수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특히 소나무류는 항균작용과 산림욕의 최적 요소라고 한다. 소나무를 이용한 건축이나 솔잎 등 소나무의 모든 재료가 식용으로 쓰이고 미세먼지 제거에도 소나무 잎은 단연 으뜸이다.

### ■ 공존을 허락하지 않는 소나무

다만 나무와 숲이 인간의 심성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는 타 식물이 곁에 자라는 것을 지극히 꺼리는 소나무의 특성은 다양성을 배척하며 공존을 허락하지 않는다. 우리의 숲이 천이로 인해 소나무는 점점 사라지고 잎이 넓은 수종인 활엽수는 타 식물과 공존의 관계를 잘 유지해 숲의 다양성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활엽수의 장점이 더 많다고 할 것이다. 기후 변화에 따른 수종의 변화는 어찌보면 우리의 심성을 더 넓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이제 우리는 연대와 생명의 세기로 전환해야 할 때다. 나무와 인간의 감성적 유대를 넓히고 생명의 근원은 흙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과 그 근원을 지키는 일, 인간과 환경이 서로 돌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끝없는 이기심과 소비 욕망을 줄이는 일이 먼저다. 코로나의 역설은 우리를 자연생태적인 삶의로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잘 정리된 조림지 숲길은 산림욕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침엽수와 활엽수의 끊임없는 경쟁과 천이의 모습

# 영천시, 복지사각지대 상시 발굴... 고지서 활용 확대

### 예산X, 위기가구 발굴 시민동참가능, 긴급 지원 유관기관 동참 및 생활밀착형 고지서로 확대

영천시가 지방세 고지서를 활용 해 복지사각지대 상시 발굴에 나선다.

고지서를 이용한 홍보는 별도의 예산이 발생하지 않고 은둔형 위기가구를 발굴하기에 시민 동참이 가능하며 긴급 지원 요청으로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해 사전에 예방에

중점을 두었다.

시는 우선 지방세, 세외수입 고지서 등에 홍보 문구를 삽입하고 유관기관의 동참도 적극 유도하며 전기·가스·보험료, 공공주택임대료, 공동주택관리비 고지서 등에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위기 징후 빅데이터 신규 정보 5종(중증질환 산정특례자, 의료기관 장기미이용 장애인, 장기요양 등급자 및 등급외자, 복지멤버십 미신청자, 주민등록 세대원)을 확대하고 발굴된 가구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긴급복지, 공동모금회, 민간 후원금품 연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바우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효정 기자

**영천시 세입통합 ARS 간편납부 안내**  
☎ 1899-6115(영천시)

**세금 납부가 편리해졌어요**  
▶대상과목: 지방세, 세외수입 일반, 주정차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방법: 1899-6115로 전화 → 납부명령 선택 → 안내에 따라선택 납부 → 통화종료 → 납부완료 메시지 도착(음)

**365일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전화만 있으면 가능해요**  
지방세 환급신청, 자동차세 선납 신청도 편리하게 OK

---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알려주세요!**  
\* 지원내용: 복지상담, 복지서비스, 긴급지원 등

영천시 복지정책과 ☎ 054-330-6271

**내 고향 영천도 살리고! 담례품도 받고!! 세액공제도 받고!!**  
1석3조 고향사랑기부제가 '23. 1. 1.부터 시행됩니다.

- (기 부 자) : 개인 (법인 불가)
- (기 부 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
- (기부금액) : 연간 상한액 500만원 (지자체 합산)
- (세액공제) : 10만원 이하 100%, 10만원 초과 16.5%
- (담 례 품) : 기부액의 30%(지역산물, 지역화폐 등)
- (기금사용) : 주민복지 증진사업

☎ 영천시청 세정과 ☎330-6299, 영천시 홈페이지(www.yc.go.kr)

## [대창면] 고령자용 보행보조차와 이불 나눔

### 지역 내 취약계층 10가구

영천시 대창면(면장 박용달)은



지난 7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봉섭)가 지역 내 취약계층 10가구에 보조 보행기 5대, 겨울이불 5채 등(약 100만원 상당)을 기탁했다.

지역 고령화로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고령자용 보행보조차를 나누고 겨울을 맞아 계절용 이불을 기탁하게 됐다고 대창면을 통해 나눔의 의미를 밝혔다.

## 영천시, 경북 축산업무 종합평가 '대상' 수상

### 축산분야 육성 시책 추진 인정

영천시는 경북도 주관 올해 '시·군 축산업무 종합평가' 결과 도내 23개 시·군 중 1위를 차지해 대상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우수상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이다. 경북도 축산업무 종합평가는 축

산 분야 우수 추진 시·군에 사기를 높이고 축산업 육성 시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도비 예산 집행, 공모사업 선정, 신규 사업 발굴, 축산분야 평가 지표 등 5개 분야 16개 항목을 평가해 시상한다.

영천시는 축산분야 170억원의 예산 확보와 축산아취 개선사업 등

공모사업 선정,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실적 등에 높은 점수를 인정 받았다.

최기문 시장은 "이번 축산분야 대상 수상도 우리 축산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하고 묵묵히 달려온 결과의 보답이라고 생각한다"며 수상 소감을 전했다. 김효정 기자

## [자양면] 산불감시원, 산불인화물질 제거

### 국가지원지방도 69호선 도로변 인화물질 제거

영천시 자양면 행정복지센터에



서 지난 8일 국가지원지방도 69호선(자양면 구간)과 관내 주요 도로변 축구 산림인접지에 인화물질을 제거하기위해 사전제거반을 운영한다.

사전제거반은 산불감시원 11명이 편성돼 매주 수요일마다 수로에 쌓인 낙엽 및 영농 쓰레기 수거·제거해 수로 우수 관리, 환경개선을 위해 활동한다.

김효정 기자

## 영천시보건소,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최우수기관

### 안심학교 운영·경로당 천식예방

영천시보건소는 지난 8일 대구 호텔인터불고에서 열린 2022년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성과대회에서 최우수기관 표창을 받았다.

이번 성과대회에서 영천시보건소는 지역 내 30개의 안심 학교를 운영하고 경로당 노인 대상 천식 예방 프로그램 진행 등으로 지역주민 건강증진과 예방관리 환경 조성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성과대회는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평가를 통한 표준화 체

계를 마련과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를 통한 사업 활성화 도모를 위

해 마련돼 25개 시·군 보건소가 대상이다. 김효정 기자



## [중앙동] 영천농산물도매시장, 굴 전달

### 독거노인 가구에 굴 120상자



영천 중앙동(동장 김성현)은 영천농산물도매시장(대표 김남구)이 13일 관내 복지소외계층에 전달해 달라며 굴(5kg) 120상자를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된 굴은 관내 독거노인 120가구에 전달됐다.

김효정 기자

## 영천시, 12월-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내년 1월2일까지 납부

### 납부 기간 지나면 가산금 추가

영천시는 2022년 제2기분 자동차세 2만7천여건, 42억 9천여만원을 부과하고 납부 고지서를 발송, 내년 1월 2일까지 납부기간을 운영한다. 납부 기간이 지나면 가산금 추가된다.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

준 자동차등록원부 상 영천시에 등록된 자동차(건설기계, 125CC초과 이륜자동차 포함)를 대상으로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해 세금 부과다.

납부기한은 12월 16일부터 2023년 1월 2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인터넷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Wetax), 인터넷지로,

가상 계좌이체, ARS(1899-6115),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하면 된다.

"자동차세는 납부 기간이 지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등 불이익이 따르므로 시민 여러분께서는 인터넷, 스마트폰, 무인 납부기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기한 내 납부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 [청통면] 호당2리 주민, 심폐소생술 교육

영천시 청통면(면장 양광환)은 지난 7일 호당2리 마을회관에서



주민 20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CPR) 교육했다.

이번 교육은 주민들의 요청으로 진행돼 영천소방서(예방안전과)에서 교육했다.

어르신 참석자가 많아 ▲응급상황 발생 시 행동 요령 ▲가슴압박 심폐소생술 실습 등으로 어르신 맞춤형으로 진행됐다.

## 내년 심을 벼·옥수수·감자 신청하세요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영천시는 내년에 재배할 벼는 12월 15일까지, 옥수수는 12월 23일까지, 감자는 12월 28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정보보급자를 신청받는다.

이번에 신청할 수 있는 벼는 조생종(해담벼), 중만생종(삼광벼, 일품벼, 백옥찰벼)으로 4개 품종이다. 옥수수 신청 종자는 간식용(미백2호, 미흑찰, 흑점2호)와 사료용(드림옥, 강일옥),팝콘용(오륜팝콘) 6개 품종이다.

또 감자는 3개 품종으로 수미, 하령, 서흥이 있다.

벼 정부보급종은 전량 미소독 종자이므로 농가에서 파종 전에 반드시 소독을 실시하여 종자로 감염되는 병해충을 예방해야 하며,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에 위반되지 않도록 적용약제를 올바른 용법으로 사용해야 한다.

김효정 기자



고경초, 양성평등 문화 조성위한 참여형 체험 ... 전교생 김장 담그기

고경초등학교(교장 석장근)는 지난 7일 전교생 약 40여명을 대상으로 김장 담그기를 했다. 이번 체험은 양성평등교육의 일환으로 양성평등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과학실에서 참여형 체험으로 진행됐다. 고경초등학교는 탄소중립 시범학교이며 김장철을 맞아 이번 체험을 계획하게 됐다고 전했다.

[금호초] 유도부, 2022 제주컵 전국유도대회 초등부 여자 52kg급 박유진학생 동메달 획득

금호초등학교(교장 권동환) 유도부는 제주시에서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열린 '2022 제주컵 전국유도대회'에 참가해 5학년 박유진 학생이 동메달을 획득했다.

박유진 학생은 지난 6일 개인전 경기에서 메달을 획득하며 "출전한 대회에서 성과를 내어 기쁘고 6학년이 되는 내년에 꼭 소년체전에서 입상을 하고 싶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성남여중] 학교 브랜드화 특화사업 아로마제품 만들기

성남여자중학교(학교장 오상중)는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매월 5회기 이상 재학생을 대상으로 '아로마 힐링 행복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교내 Wee 클래스 및各班 교실에서 진행했다.



[영천고] 11개교 경북형 과학중점학교 운영성과 공유회

영천고등학교(교장 서정원)는 지난 10일 구미여자고등학교에서 열린 2022년 경북형 과학중점학교 운영성과 공유회에 교장 선생님 및 과학 교사 5명이 참석해 운영사례에 대한 성과를 안내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영천중앙초] 그린스마트스쿨 구축·학부모 역량강화 연수

영천중앙초등학교(교장 남의열)는 지난 12일 강당에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진행상황에 대한 안내와 학부모 역량강화 연수 '그린스마트스쿨 구축 및 학부모 역량강화 연수회'를 개최했다.



[영천여고] 사제동행 학교폭력 예방·교통안전 캠페인

영천여자고등학교(교장 신덕섭)는 지난 8일 학교 정문에서 학생자치회 학생들이 등교하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안전한 학교생활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교직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사제동행 캠페인으로 진행 됐다.



[영화초] 도시문화 체험학습...대구 신세계백화점 시설 이용

영화초등학교(교장 권해인)는 지난 2일 도시문화 체험학습의 일환으로 대구 신세계백화점 일대로 체험학습을 실시했다. 이번 체험은 유치원 및 전교생을 대상으로 아쿠아리움 관람, 백화점 내 장보기, 키즈카페 등으로 신세계백화점 내 각종 시설물을 이용하는 것이다.



[포은고] 청소년활동 홍보 영상 공모전, 김희성 '우수상'

포은고등학교(교장 박영남)는 경상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주관하는 '2022 경상북도 청소년 홍보 참여 프로젝트 청소년활동 홍보 영상 공모전'에서 김희성, 전은수 학생이 각각 '우수상',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지난 8일 전했다.



[북안초] 수학사랑축제 ... 수학 교구를 통한 교육축제

북안초등학교(교장 이강수)는 생각의 힘을 키우는 시간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7일 체육관에서 전교생 및 교직원 40여명이 수학사랑축제를 개최했다.



[영천초] 456 봉사단 무릎담요 만들기 재능기부

영천초등학교(교장 여은숙)는 지난 12일 봉사단 15명이 지역 어르신들에게 무릎담요를 만들어 기부하는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영천교육지원청] 화통, 수업·생활교육 컨설팅

경상북도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주원영)은 지난 13일 영천시내 카페에서 유·초등학교 수석교사 5명과 신규(저경력)교사 11명이 '화통, 수업공감·회복적 생활교육 마무리 콘서트'를 실시했다.

# 영천시, 특별한 것 없는 '특별한 겨울이야기' 화랑설화마을 행사 논란

"市, 무료 프로그램 끼워 어린이 동심 유발 입장료 수입 올렸다"  
 "만 4세 미만 입장 불가 시설...6세 이하 어린이집 참여 독촉 왜"  
 "행사장 스태프, 행사 프로그램 문의에 고객 안내 제대로 못해"  
 市, "유료 주제관 내 무료 체험 보텐것, 입장료 유도 끼우기 아냐"  
 市, "행사 직원 의욕 ↑↑, 참여 어린이 즐겁다고 환호 해" 반박  
 '특별한 겨울이야기' 행사...S업체에 국비 9500만원 용역 대항  
 화랑설화마을 10억 적자...같은 기간 입장 수입 1억 1473만원



<사진=1▲9일 오후 2시 30분 영천시가 '특별한 겨울이야기' 행사를 하고 있는 화랑설화마을 정문 입구>

영천시 화랑설화마을 '특별한 겨울이야기' 행사에 "특별한 것이 없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료 주제관 입장을 위해 무료 프로그램을 끼워넣어 행사 첫 날부터 어린이 동심을 이용한 입장료 수입까지 챙기는 꼼수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시급한 행사 재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 이것이 9500만원짜리 행사?

영천시의 '특별한 겨울이야기' 행사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화랑설화마을' 운영 활성화 차원에서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S업체에 용역을 맡긴 국비 9500만원 공모사업

프로그램이다. 행사 첫 날부터 지역 각 어린이집을 상대로 전화로 수차례 참여 협조 요청을 독려한 이유다.

행사를 하는 줄도 몰랐던 지역 어린이집 원장들은 영천시의 갑작스런 이같은 참여 요청에 서둘러 행사장을 찾았지만 "무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린이 1인당 2500원~2000원의 입장료를 부담해야 했다"고 말하고 "아침부터 속은 기분이다"면서 불만을 토로했다.

첫 날 행사장을 찾았던 복수의 어린이집 원장들은 "가로 10cm, 세로 15cm 크기의 복사지 옆서에 산타 무료 색칠하기와 별자리엽서를 받기위해 4만여 원의 단체입장료(주제관 입장료)를 내야 한다는 것은 순수한 어린이 동심을 이용한 영천시의 꼼수 영업행위다"며 즉각 시정을 촉구했다.

### ■ 만 4세 미만 입장 금지

참여를 하지 않은 A어린이집의 경우 "주제관에는 만4세 미만의 어

린이만 입장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다. 통상 어린이집 아이들이 대부분 만 6세 미만인데도 영천시가 어린이집을 상대로 이처럼 무작위 행사 참여를 독려한 것은 무능 행정의 한 단면을 노출시킨 것이다"며 꼬집었다.

본지의 현장 확인한 결과 총 500여원이 넘게 투입되어 조성된 11만 1938㎡(3만3,860평) 대규모 화랑설화마을은 이날 입구에서부터 행사 안내판도 없어 행사 여·부조차 알 수 없었다. 500m가량 한참을 걸어 들어가서야 겨우 행사장 부스가 눈에 들어왔지만 몇몇 학부모와 어린이를 제외하고는 단체 참여객은 보이지 않는 썰렁함 그 자체였다.

### ■ "특별한 것 없었다"

해당 담당은 "오늘(9일) 오전 9개 어린이집이 다녀갔다"는 설명, 담당의 설명대로 한 어린이집당 평균 20~30여명의 어린이로 추산해도 약 200여명의 어린이가 행사 첫날 오전에 다녀간 것. 담당은 어린이집 불만과는 반대로 "아이들이 너무 즐겁고 재미있어 했다"는 설명이다.

본지 제보 또 다른 어린이집 원장은 "특별한 겨울이야기 행사에 특별한 것이 있었나"며 반문하고 "산타를 찾으면 선물을 준다고 알고보니 산타 질문에 어른도 알 수 없는 답(사군이춤)으로 롤렛(회전판) 1회 돌리는것이 선물이

였으며, 이어 회전판을 돌려 고구마(팝콘) 1개를 얻는것이 고작이었다"는 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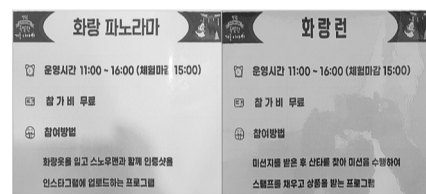
영천시가 어린이집을 상대로 참여를 독려한 홍보물 어디에도 입장료가 있다는 내용은 없었다. 오히려 산타를 찾고 선물 받아가기, 사진찍고 인스타그램 올리고 경품받기 등 모두 무료 프로그램으로 참여를 유도한 내용이다.

입장료를 내는 주제관으로 들어가봤다.

당시 고장났던 전자 할 체험장의 할 5세트는 아예 철거해 버리고 대신 그곳에 테이블 한 개씩을 놓고 산타 색칠하기와 별자리 우편엽서를 받는 무료 프로그램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무료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울며 겨자먹기로 주제관 입장료를 지불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 ■ 행사장 스태프와 참여교사의 대화

『(Q)여기 돈 내나요? (A)아니 모두 무료입니다. (Q)현장에 널리게



산타인데 산타를 찾아라는 뭐죠? (A)산타 앞에서 산타가 질문하는 답을 맞으면 부스에 가서 스태프(도장)를 받는겁니다, (Q)선물은 뭐

죠? (A)회전판 한번 돌리는 겁니다. (Q)화랑런은 무엇입니까? (A)아~네...같은 겁니다. (Q)포토존은 어디에 있나요? (A)여기 주변이 모두 포토존입니다. (Q)컬러링은 또 어디서 어떻게하는 거죠? (A)우리는 행사관련은 모릅니다. 부스로 가서 물어보십시오 (부스로 달려간다) (Q)우주체험관 안에 알록달록 컬러링과 별자리엽서 체험하려 합니다. (A)아~에 여기 주제관 입장료 내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다시 나와서) (Q)화랑파노라마는 뭐니까? (A)화랑 웃입고 사진찍는 겁니다.』

한편, 영천시는 올해 화랑설화마을 운영에만 10억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 1월1일부터 현재까지 입장객 수는 6만6626명으로 입장 수입은 1억1473만원이다. 반면 같은 기간 영천시 올해 화랑설화마을 운영(공무원 인건비 제외)에는 모두 11억9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이같은 본지 취재에 행사장 市 관계자는 "입장료를 받는 주제관 안에 무료 색칠하기와 무료 별자리엽서 받기가 있는 것이지 입장료를 받기위해 무료프로그램을 끼워넣기 꼼수를 부린것은 아니다. 이번 행사에 직원 모두가 의욕에 차있다. 또 참여 어린이집에서도 너무 좋아 환호했다"며 어린이집 원장들의 불만과는 사뭇 달랐다. 장지수 기자



## 영천시, 화랑설화마을 "특별한 겨울 이야기' 행사 대성황 주장

3일간 행사에 하루 평균 참여 인원 1260명  
 3일간 유료 입장 수입은 하루 평균 150만원  
 "화랑설화마을 개장 후 일방문객 최다"주장



<사진=본지 9일 지적에 행사 마지막 날인 11일 화랑설화마을 입구 "특별한 겨울이야기' 행사 현수막 추가 게시>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열린 영천시 화랑설화마을 '특별한 겨울이야기' 행사가 완료됐다. 행사 기간은 금요일부터 토, 일요일까지 3일간이다.

### ■ 반론보도

앞서 행사 첫 날 『특별한 것 없는 '특별한 겨울이야기' 화랑설화마을 행사 논란』 본지 보도와 관련해 관계자는 행사 종료와 관련해 "오히려 많은 관람객으로 대 성황을 이뤘다"며 재 보도를 요청해 왔다.

또 "화랑설화마을에 화랑을 주제로 산타를 이용한 선물 제공 프로그램 자체가 특별하다"면서 본지

앞선 보도 제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행사 마지막 날인 11일(일요일) 본지가 행사장을 재 확인한 결과 행사장 입구 좌,우측 20여m 양쪽 도로 가장자리에 40여대의 불법 주차가 확인됐다. 기존 184면의 행사장 주차장이 만원인 이유다. 행사 첫 날 없었던 행사장 입구 행사 안내 현수막도 추가로 설치돼 있었다.

또 산타가 있는 본 행사장에는 첫 날에 비해 많은 관광객이 모였다. 즐겁고 다양한 볼거리가 많았다는 참여객 부터 선물미 부족해 주소를 적어놓고 돌아가는 관광객, 또 유료 주제관은 줄을 서는 대기 시간이 길어 입장을 포기하고 외부 잔디밭에서 아이들과 야외 소풍을 즐기고 있는 관광객 등 다양했다.

관광객은 영천은 물론 대부분 인근 도시 포항과 경주 등지에서 주로 인스타그램 홍보로 참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 ■ 참여객 인터뷰

대구에서 자녀 2명과 함께 행사장을 찾은 한 부모는 "두 아이의 손에 각각 뽀로로 사과 음료수 한 개씩 선

물받았다"며 "추운 날씨에 비해 산타의 질문도 어려워 부적절했으며 선물도 아이들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고 말했다. 행사 참여 선물은 아이 1인당 대부분 고구마 1개, 팝콘 1봉지, 음료수 1봉 중 택일이 전부다.

반면 경주에서 가족과 함께 우연히 행사장을 들린 관광객(4인 가족)은 "산타도 있고 여기저기 볼거리가 많아 아주 즐거웠다"고 평가했다.



<사진4=행사 마지막 날인 11일 영천시가 제공한 행사장 모습>

또 지난해 화랑설화마을 개관부터 줄곧 시행되는 어린이 궁도체험장에는 여전히 10여명의 어른과 아이들이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었다.

궁도장 운영 관계자는 "여기는 평소 휴일에 항상 대기해야 한다. 오늘(11일)도 평소 휴일의 참여 인

원과 비슷한 숫자다"고 말했다.

### ■ 행사참여 수, 수익금액

한편, 이날 영천시에 따르면 행사 첫 날인 9일(금요일) 유료 수입 금액은 2만8000원, 10일(토요일) 193만원, 11일(일요일) 약257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3일간 일 평균 150만원 꼴이다. 물론 어린이 궁도장 체험 수입 포함이다.

앞서 본지는 행사 첫(9일) 날 "영천시가 지역 어린이집(만 6세 이하)을 대상으로 행사 참여를 독려한 안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비 9500만원을 투입해 무료 행사를 하면서 만4세 미만 어린이가 입장할 수 없는 주제관에 무료 프로그램을 배치해 어쩔 수 없이 어린이들이 주제관에 유료로 입장해야 하는 모순을 지적한 바 있다. 첫날 대부분 어린이집은 유료입장을 하지 않고 돌아갔다.

### ■ 市 관계자는

해당 부서 관계자는 "행사 첫 날 참여객 부족은 인정한다"면서도 "모처럼 이번 행사는 대 흥행이었다. 화랑설화마을 개장 후 가장 많은 인파였다"며 그러나 "산타의 어린이 대상 질문과 선물 등 어린이 눈 높이에 맞지 않는 부적절성에 대하여는 보완하고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여러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시정해야 할 문제점 등은 공무원 인사이동 시에도 직원들에게 인계 할 수 있는 행사 백서를 제작해 잘못된 행사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지수 기자

# '만인을 위한 복지구현' 선각자 故 이태영 대구대학교 초대 총장 27주기 추도식

### '박애정신'으로 대한민국 복지국가 기틀 마련 소외된 이웃·장애인 차별 철폐 선구자 적 희생 故 이태영 총장의 숭고한 삶에 대한 추모 물결

박애정신은 인종·종교·습관·국적 등을 초월한 인간 사랑 정신이다. 모든 것을 초월해 세계를 근본으로 인류에게 가지는 통합 감정이 박애(博愛)다. 만인을 위한 실용 복지구현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대구대학 설립자 (창과) 故 이태영(1929 ~ 1995) 초대 총장에게 붙여진 수식어다.

대구대학은 지난달 29일 오후 '만인에 의한, 만인을 위한, 만인의 복지구현'의 박애정신 선구자 이태영 총장의 제27주기 추도식을 교내 이태영 총장 묘소에서 엄숙히 거행했다고 1일 밝혔다.

학교측에 따르면 이날 추도식은 경북영광학교(교장 강진순), 영천팔레스(원장 김형기), 영천

파파야(원장 김대석) 세 기관이 주관했다. 헌화와 애도의 참석자들로 故 이태영 총장의 숭고한 삶에 대한 추모 물결을 이뤘다.

이날 추도식은 전종호 목사(칠곡신촌교회)의 (추도)예배에 이어 유족대표(이예숙 前 대구미래대 총장) 추모사는 고인이 평소 소외된 이웃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 철폐 노력과 정신은 시대에 앞선 선구자적 희생정신을 새삼 일깨웠다.

창과 이태영 총장은 생전에 '큰 뜻을 품어라'는 교훈과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 사회적, 경제적 격동의 세월인 1956년~1981년 특수학교의 기틀을 다져 한국사회사업대학을 설립해 학장을 역임했다.



1981~1993년 국내 사회복지와 특수교육 인재양성의 메카로 자리 잡은 한국사회사업대학을 종합대학으로 승격시켜 보다 발전된 우리나라 대학 교육의 청사진을 제시해 왔다.

바로 그 때 특수교육의 불모지 대한민국이 미래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기틀을 다진 선각자다.

이런 창과의 공적으로 1996년 8월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

받았고, 대구미래대학교, 경북영광, 보건, 보명, 덕희, 포항명도학교를 설립·운영해오는 과정에서 장애인들과 소외된 이들을 사랑하는 그의 마음과 정신은 지금도 장애인 교육의 선각자로 살아 숨 쉬고 있다.

종합대학으로 승격된 후 지금의 대구대학교로 교명 변경과 동시에 1982년 대구대학교 초대 총장이 된 고인은 아버지 故 이영

식 목사의 정신을 이어받아 학교를 특수교육의 요람으로 우뚝 세웠다.

1987년 6월 민주화운동의 거센 물결이 대학가에 몰아칠 때 과중한 업무로 이듬해 봄 결국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병세가 악화해 미국으로 출국해 치료를 이어갔지만 회복하지 못하고 만 59세의 나이로 1995년 11월 29일 생을 마쳤다.

장지수 기자

#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내년 도교육청 일회성 행사·낭비성 예산 678억원 삭감 의결

### 내년 예산 5조9229억중 불요불급 71개 사업 678억원(1.14%) 감액 "낭비요인 제거 사업은 안정적 예산 확보 후 효율성 높여달라" 당부



교육위원회 위원장 윤승오

경북도교육청 2023년도 본예산 중 시급하지 않는 예산과 낭비 및 사업성 부족예산 등 모두 678억원이 삭감됐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승오)는 지난 1일 제12대 제336회 제4차 교육위원회의를 개최하고 낭비성예산, 사업성부족 및 예산의 효과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북도교육청 2023년 본예산 중 678

억원을 삭감하고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계수 조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삭감된 678억원은 도교육청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 5조 9,229억 중 1.14%에 달하는 71개 사업예산이다.

시설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시급하지 않는 368억원, 효과성이 낮은 스마트기기하자관리 28억원, 기본운영비로 사용이 가능한 예산 17억원 등이 삭감 처리됐다.

또 일괄적으로 증액시킨 동호회,

동아리 예산과 기준이 없는 교실구축사업에 대해서는 일정금액으로 예산을 조정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기했다는 것.

하지만 위원회는 하반기 경기변동과 불확실성 및 학생수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금 개정 논의 등 세입 감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삭감 예산을 전액 예비비로 증액 시키지 않고, 교육청이 운영 관리 중인 교육재정안정화 기금에 300억원을 증액하는 등 미래 세입 감소에 대비했다.

윤승오 위원장(영천)은 이번 예산심사에서 "98.5%의 이전수입으로 운영되는 예산은 세출 구조 조정과 정책 혁신, 사업효과가 불분명하거나 의례적으로 반복해온 사업 또는 교육과정 운영이 아닌 행사성 사업 등은 최대한 축소했다"고 밝혔다.

반면 윤 위원장은 또 "낭비요인 제거를 통해 안정적 예산 확보와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장지수 기자

#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경북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 2022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2조3844억 원... 원안 통과 노인·대중교통 이용지원 - 보이스피싱방지 조례 원안 가결 적극적 의정활동...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안정에 방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이준우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준우)는 제336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인 12월 12일과 13일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최해 소관 실

국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10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의·의결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10개 실국에서 제출한 202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2조 3844억 원으로, 기존 예산 대비 2611억 원(12.30%)이 증액된 규모다. 증액사유는 국비예산 증감에 따른 도비 부담액 반영, 시군 조정교부금, 공자기금차입금원금상환 등이며, 감액사유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경상경비 절감분, 사업비 집행 잔액을 감액한 것이다.

양일간 진행된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기획경제위원들은 연도 내에 마무리하지 못하고 이월하는 각종 용역 등에 대하여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임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 중 추진이 불가한 사업은 제1회 추경에서 미리 감액하여 다른 시급한 분야에 예산이 투입할 것을 강력히 주문하였다. 아울러 제2회 추경에 감액된 부분을 지적하며, 효율성과 성과창출에 중점을 둔 사업운영과 철저한 사업관리를 당부했다.

한편, 같은 날 안건 심사에 있어서는 도내 고령자·장애인·어린이들의 이동권 보장 및 교통편의를 증진을 위해 이선희(청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고, 보이스피싱 등 피해를 방지 및 예방을 위해 최병근(김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했다.

또한, 도지사가 제출한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교통 및 자동차 물류에 관한 사무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민생과 밀접한 분야의 사무임에 따라, 당초 건설도 시국에서 경제산업국으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했다.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11월 8부터 21일까지 도 분청 및 출자출연기관 등 18개 기관에 대해 실시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도 채택했다. 위원회는 결과보고서에서 시정·처리 21건,

건의·촉구 82건 등 총 103건의 지적사항을 통해 집행부 업무전반에 대해 개선 및 대안책을 제시하였으며, 예산집행의 효율성 향상과 출자출연기관 지도감독 강화 등을 주문했다.

이준우(영천) 위원장은 "올 한해 도 러-우크라이나 전쟁, 종식되지 않은 코로나 등 대내외적 요인으로 녹록치 않은 한해였고,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일자리창출,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고 위원회를 운영했다."면서, "내년에도 지역경제 및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지수 기자

### 제16대 해병대 영천시 전우회 이경락 신임 회장 취임 임식 회장 권용범(제15대)



이경락(신임) 권용범(임임)

2023년부터 해병대 영천시 전우회를 이끌어 갈 제16대 이경락 신임 회장 취임식이 지난 9일

영천 스타컨벤션웨딩 3층에서 제15대 권용범 회장 이임식과 함께 성황리에 열렸다.

신임 이경락 회장은 지난 11대 회장을 역임한 바 있어 이번이 두 번째 회장 취임이다. 임기는 2년이다.

이날 임임 권용태 회장은 "지난 임기 동안 전우회를 좀 더 양성하게 이끌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신임 회장단이 우리 해병 전우회를 활기차게 이끌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경락 신임 회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우리 전우회가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봉사단체가 될 수 있도록 찬란한 해병대 정신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이·취임식에는 구미시 해병전우회를 비롯해 경북연합회 임원과 포항 등 인근도시 해병전우회장 및 임원들이 대거 참석해 화합과 단결력을 과시했다.

정기총회를 겸한 이날 이·취임식에서 신기종 경북연합회 부회장이 해병대 총재상, 김태욱 14대 회장이 경북연합회장상, 김정훈 수석부회장(경북도지사상), 김낙균 기동대장(국회의원상), 권용범 직전회장(영천시장상) 등 모두 12명이 수상했다.

장지수 기자

## 2022년 영천시자원봉사자대회 성료

### 대한민국자원봉사 대상-출동무조건재난지킴이봉사단 배경식 단장 가장 아름다운 다섯글자... "사랑합니다.고맙습니다.자원봉사자"

영천시자원봉사센터(소장 구홍우)는 지난 8일 오후 영천시민회관에서 600여명의 지역 자원봉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영천시자원봉사자대회를 개최하고 한 해 동안 고생한 지역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다. 제5대 구홍우 시장자원봉사센터 소장 취임(2022.1.1) 1년만에 처음 열리는 봉사자대회다. 영천에는 현재 223개 자원봉사 단체

에 2만50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활약중이다.

이날 대회는 참석 내빈들의 축·환영사에 앞서 오후 2시 김정현 전자바이올린 독주와 배재혁 가수의 통기타 등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오후 3시 대회의 꽃인 봉사자들에 대한 시상식, 내빈 인사, 퍼포먼스 순으로 성황을 이뤘다.

대한민국 자원봉사 대상에는 영천 출동무조건재난지킴이 봉사단의 배경식 단장에게 돌아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또 평소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 나눔과 배려의 헌신적 봉사활동을 펼친 우수자원봉사자상에는 영천남부여성이용소방대 최임수와 무량수봉사단 채태연, 삼소봉사단 전은영 등 20명이 최기문 영천시장의 표창패와 상장을 받았다.

특히 지역사회를 따뜻한 사랑으로 자원봉사 정신문화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아름다운봉사회(박외준), 온시디움봉사단(김동우·유현빈) 등 5명이 영천시의회 하기태 의장의 표창패와 상장을 받는 등 이날 대회에서 모두 43명의 우수자원봉사자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한편, 이날 영천시자원봉사자대회 축하를 위한 이만희 의원의 축전과 영천시자원봉사센터 박봉규 이사장의 대회사, 최기문 영천시장의 격려사, 하기태 영천시의회 의장의 축사에서는 모두 한마음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섯글자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자원봉사자"로 마감했다.

장지수 기자



지난 8일 오후 영천시민회관에서 열린 2022 영천시자원봉사자대회 유공자 시상에서 영천시의회 하기태(가운데) 의장 표창을 받은 우수자원봉사자=아름다운봉사회(박외준), 한국자유총연맹 영천시지회(김태자), 온시디움봉사단(김동우·유현빈), 도담도담가족봉사단(유지욱) 수상자



대한민국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영천시자원봉사센터 구홍우(왼쪽 네번째) 소장의 표창패와 상장을 받은 수상자=이재훈, 박봉환, 김미향, 이정애, 이재민

### 경북 영천 '세기리텍' 이태준 대표 '2022 노사문화유공' 대통령 표창



경북 영천시 금호읍 오계공단 내 배터리 리사이클링 전문업체 '세기리텍' 이태준(65) 대표가 정부 '2022 노사문화유공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 시상식은 오는 20일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지난 7일 상생과 협력 노사화합 실천으로 노사문화 정착·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전국 62개 단체 및 개인을 선정해 각 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등 2022년 노사문화유공 및 지역노사민정협력유공 정부포상 수상자를 공개했다.

경북 지역에서는 영천 소재 '세기리텍'(대표 이태준)이 대통령 표창을, 대구한의대학교(총장 김중웅)와 사)경북경영자총협회(회장 석동현)가 각각 국무총리표창을 받았다.

세기리텍은 2010년 설립해 현재 종업원 59명으로 연간 870억원의 매출 중소기업이다. 이 대표는 '정도·창조경영과 직원을 가족처럼'이라는 경영이념을 두고 있다.

이번 유공 표창 심사에서 세기리텍은 ▲고용유지 협약을 통한 코로나 고용위기 극복 ▲비정규직 제로(0) 회사 ▲근로자 대학 학자금(2자녀까지) 전액 지급 ▲경영 초과 이익에 대한 성과급 지급 ▲정기 회식 ▲정시 퇴근 문화 정착 ▲외국인 고용 최소화(비중 10% 이하)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노사상생을 위한 차별 해소에 기여한 노력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박한우 객원기자

### 김기현, "범죄앞에 성역 없다" 「서해피격」사건, 文 전 대통령도 수사해야

김기현 국민의힘 전 원내 대표가 "범죄앞에 성역은 있을 수 없다"며 강력하게 文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해 공무원 북한 '피살사건'과 관련해 文 전 대통령이 지난 1일(尹 정권) 검찰을 향해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발언한 이후 이 사건과 관련해 3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되자(민주당을 향한) 비판 공세 수위를 높인 것이다.

김 전 원내대표는 3일 오후 3시 영천 청소년수련관에서 가진 영천-청도 당원협의회 초청 당원교육 자리에서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사살되고 시신이 소각되었는데

文 정부가 해경의 '해상추락' 판단을(당시) 대통령실(文정부)이 직접 나서서 '월북추정'으로 바꿨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월북몰이)은 文 전 대통령의 지시하에 이뤄진것이 분명해 보인다"며 재차 文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또 김 전 원내대표는 文 전 대통령을 향해 "잊혀진 삶을 살고 싶다더니 관중 본능이 또 도진 것 같다. 가히 김정은의 수석대변인다운 발언"이라며 "대북 평화쇼를 위해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고 더 나아가 그와 유족에게 2차 가해행위까지 저지른 文 전 대통령은 구차한 자기변명이 아니라, 대



김기현 의원(왼쪽), 이만희 의원

국민 사죄를 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김 전 원내대표의 당원교육 특강 주제는 "조직을 빛나게 하는 리더"였다.

장지수 기자

### 영천시 두 번째 유물기증자 정희봉씨...부친 뜻 따라 기증

#### 부친이 30년간 수집한 근대 지역 농업 및 생활상 1195점 영천시 2025년 시립박물관준공 예정...1332점 유물 확보

오는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건립 중인 영천시립박물관에 전시될 두 번째 유물 기증자가 나왔다. 첫 기증자는 지난 8월 제만서합집·간찰 25점을 기증한 조특래씨다.

영천시는 지난 2일 정희봉 원장(치과)으로부터 1195점의 유물을 기증 받아 기증식을 개최하고 감사패와 증서를 전달했다면 서 이같이 밝혔다.

기증품은 정 원장의 부친이 30년간 수집한 지역 전통 농업 및 생활 유물로 앞으로 관리의 어려움이 있고, 많은 사람들과의 공유를 원했던 부친의 뜻에 따라 이번에 영천시에 맡겨졌다.

시는 지난 7월부터 시가 직접 구입한 유물 112점과 지난 8월 조특래씨가 기증한 제만서합집·간찰 25점을 포함해 이번에 정 원장의 기증 유물 1195점 등 모두



1332점의 유물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영천시립박물관은 2025년 준공 및 개관을 목표로 화룡동 134번지 일원에 건립될 예정이다. 김효정 기자

김섭 변호사의 法鏡



대표 변호사 김 섭  
성광합동법률사무소

아파트 위층 누수로 아랫층 피해 보상  
위층도 세입자면 실제 집 주인에게 보상 청구하나?  
사용 목적물의 정의 명확히 구분해 줘야

사소한 공작물(목적물)은 점유(이용)자 책임  
임차인 수리불가 목적물(보일러)은 소유자 책임

**문** 아파트에 거주하는데, 위층에서 발생한 누수로 거실 안의 소파와 옷가지들이 손상되었고 벽지도 못쓰게 됐다. 위층에도 임차인(甲)이 살고, 보일러배관 파손으로 생긴 누수다. 저는 위의 임차인과 위층 아파트의 소유자 乙 중 누구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나요?

**답** 아파트는 민법상 공작물에 해당한다. 임차인은 공작물의 점유자다. 귀하의 위층 임차인(甲)은 '공작물 점유자'로서의 지위와 '임차인 지위'에 있다. 따라서 공작물의 점유자로서의 책임과 임차인으로서의 책임이 모두 인정되지 않아야 甲이 누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위층 점유자가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 의무가 있다. 임대차 관계에서 임차인의 주의란 ① 임차인이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하자라면 임차인에게 수선

의무가 있다. ② 임차인이 손쉽게 고칠 수 없는 정도의 하자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임대인에게 통지하여 수리를 요해야 한다.

임차주택 내부에 숨은 하자여서 임차인이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관계로 미리 그 손해를 예견·방지가 불가능한 경우 책임이 없다. 이 경우 무과실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임대인에게 그 책임이 귀속된다.

임차인 甲의 책임 부분을 살펴보자, 법에서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 623조),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무엇이나에 관하여 판례는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이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가 없다. 만약 그것을 수선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귀하의 사건은 아파트 위층의 하자는 보일러 누수로 인한 것이고, 위층 임차인 甲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하자가 아니라고 보이므로, 그 甲이 그러한 하자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했다는 증거가 없는 한 甲에게는 책임이 없고, 결국 무과실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위층 아파트의 소유자인 乙의 책임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위층 아파트의 소유자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 질의 해주시면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김섭 법률사무소

대구 수성구 범어동 348-15, 울촌빌딩 501호  
전화 053)755-7500

세무



윤영민 세무사  
세무회계 바로

가족끼리 사업체운영 ... 4대보험은 어떻게  
4대보험 친족=8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친척(배우자)

근로기준법 근로자 아니면=고용-산재 적용 제외  
가족 회사, 타 근로자와 동일임금 목적은 근로자

최근 급격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가족과 함께 사업체를 운영하는 곳이 많아지고 있다. 가족과 함께 일할 경우 4대 보험 가입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알아본다.

4대 보험에서의 친족은 민법상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를 말한다. 친족인지 또는 동거하는지 여부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표 등으로 판단한다.

4대 보험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 근로하고 있는 사용자(개인사업장의 대표, 법인의 대표이사)의 친족이 근로자인지 아닌지와 무관하게 모든 친족이 건강보험, 국민연금 사업장의 직장가입 대상자가 된다. 그러나 사용자의 친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된다면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되고, 근로자가 아니라면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제외 대상이 된다. 근로자의 판단은 통상의 근로자 판단기준을 적용한다.

따라서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으면 통상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그러나 친족이 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 경우 근로자로 보지 않아서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않는다. 배우자의 경우는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사업주와의 동거여부는 판단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지 않으며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않는다.

동거 친족이 같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조건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보수를 지급 받는다면 근로자로 인정되나, 질의서상의 대표이사의 친족이 일반 근로자와 달리 출퇴근시간이나 소정근로시간이 일정하게 책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대표이사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지 않음은 물론 전반적인 회사 업무를 총괄한다면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행정해석이 있다.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TEL 054-334-0500 FAX 054-334-0501

E-MAIL ctayym87@naver.com

우종철 칼럼



우 종 철

(본지 객원논설, 일요서울 논설주간)

왜곡된 역사교과서 수정 그리고 일연 스님의 '자주사관'  
(自主史觀)

지난 8월 말 공개된 중·고교 역사 교과서와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1차 시안은 좌편향적 시각으로 기술됐다. '6·25 남침' 서술이 빠지고, '자유민주주의' 대신 북의 인민민주주의를 포함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넣었다. 논란이 일자 연구진은 2차 시안에서 '6·25 남침'을 포함했지만, '민주주의' 표현은 그대로다. 문재인 정부가 좌파 연구진을 통해 '역사교육 알박기'를 시도한 결과였다.

나라의 근본을 쪼먹는 좌편향 역사교과서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동량을 가르칠 수는 없다. 교육부가 2025년부터 고교생이 배우게 될 새 한국사 교과과정에 '자유민주주의'를 다시 넣고, 초·중학교 사회 교육과정에 '기업의 자유'와 '자유경쟁을 기반으로 한 시장경제'라는 표현을 명시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다.

남북 분단 77년은 남북간 국가정체성 대립의 역사였다. 국가정체성이 훼손되면 국훈(國魂)이 사라진다. 국훈이 사라지면 나라가 쇠망해 대한민국이 영속할 수 없다. 고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관(史觀)을 교과서를 통해 학생들에게 주입하려 했던 좌파 정권의 '지적 폭력'은 용서받을 수 없다.

우리는 근세 일제 강점기에 벌어진 일본의 역사침탈을 경험했고, 지금도 중국의 동북공정 역사왜곡에 진저리를 치고 있다. 이런 마당에 외부의 역사침탈 보다 위험한 내부의 역사조작이 나라의 발목을 잡고 있다.

'원간섭기(元干涉期, 고려가 원나라의 간섭을 받았던 97년의 시기)'에 민족의식을 고취하려는 거대한 움직임이 일어났다. 고조선(단군)을 우리 역사에 최초로 내세움으로써 중국과 대등한 연대로 끌어올려 민족의 정체성을 재정립한 인물이 있다. 그가 바로 일연(一然, 1206~1289) 스님이다.

일연은 최씨 무인정권의 전횡과 몽골의 고려 침입으로 절절된 신난

(辛難)한 세월을 살았다. 칭기즈칸이 몽골을 통일한 해인 1206년 경산에서 출생했다. 아버지는 경주 김씨 언정(彦鼎)이고, 속명은 견명(見明), 자는 회연(晦然), 호는 목암(睦庵)이다. 원효는 설총을 낳았고, 일연은 그 부자 이야기를 <삼국유사(三國遺事)>에 기록했으니 이 세 사람을 '삼성산(三聖山, 경산시 소재)'이 낳았다고 전한다.

일연은 22세에 승과의 선불장(選佛場)에 장원 급제한 후 달성의 비슬산을 중심으로 수행하였다. 44세 때 정안거사의 요청으로 남해 정림사에서 <팔만대장경> 간행에 참여했으며, 72세 때 임금의 명으로 운문사에서 <삼국유사> 집필을 시작했다.

내우외환 속에 사라질 위기에 있던 우리의 민족문화 유산이 <삼국유사>에 실린 향가, 민담, 설화들이 다. 육당 최남선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야 될 경우를

가정한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후자를 택할 것"이라고까지 하였다.

일연은 78세 때 '국존(國尊, 국사)'에 책봉되어 개성에 머물러야 했지만, 이듬해 96세 어머니에 대해 효성을 다하기 위해 군위의 인각사(麟角寺)로 은퇴하였다.

5년 후인 1289년 7월 8일 일연은 "오늘은 내가 갈 것"이라는 말을 남긴 뒤 84세로 열반에 들었다. 이후 나라에서 보각국존(普覺國尊)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익재 이제현은 "근세의 비구로 불조(佛祖)의 도를 밝혀 후학에게 열어준 이는 보각국사로 그 문도가 수천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일연의 민족 자주정신 고취는 700년 뒤인 일제강점기에 단재 신채호에 의하여 재현됐다. 우리 역사를 군왕의 역사에서 민중의 역사로, 사대적 역사관에서 '자주적 역사관'으로 바꿔 놓은 민족사의 거인, 일연 스님의 '장엄한 생애'를 경모한다.

- ◆문재인 정부, 초·중·고 사회 교과서 왜곡 좌파 역사교육 알박기 시도
- 6.25 남침, 자유 빼고 북한식 민주주의
- ◆윤석열 정부, 나라 쪼 먹는 좌파 교육 안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삽입
- 국가 정체성 부정 사관(史觀) 용서 안돼

'영천신문'의 인터넷판 '영천투데이'를 클릭하면 오늘이 보입니다 Best!

홈페이지(영천신문과 공통)  
www.yctoday.net  
기사제보 : yctoday1@naver.com

영천신문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장지수 | 인쇄인 ㈜중앙일보  
대표전화 332-2400 | FAX 335-6600 | E-mail ycn@yctoday.net  
구독료 : 월 5천원, 1년 6만원, 경상북도 영천시 호국로 17  
계좌번호 : 농협 301-0093-9954-51 (㈜영천신문)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신입 및 경력 기자 모집

- 부문 : 취재기자 0명
- 급여 : 최저 250만원 이상
- 나이제한 : 만 50세 이하
- 서류 :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1500자 이내 자기소개서
- 제출처 : 메일 ycn@yctoday.net
- 서류심사 후 별도 면접 통보
- 합격자 추가 제출서류 별도 <제출된 서류 반환하지 않음>

(주)영천신문 / 영천투데이

### [ 영천교육지원청 ]

# 영천교육, 더 가까이 다가가는 교육회복 지원으로 희망을 찾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느 해보다 평범한 일상으로의 회복을 간절하게 바랐기에 모두가 각자의 분야에서 제자리를 찾자 애써 온 2022년, 학교현장의 온전한 교육회복을 위해 더 가까이 다가가는 교육회복 지원으로 교육에서 희망을 찾았던 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주원영)의 일년을 돌아보았다.

■ 희망 하나,  
교육지원청 역할재구조화 시범청 운영으로 새로운 학교지원 방식 모색

교사의 업무를 더 능동적으로 지원하여 업무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의미로 '더해주고 덜어주는 학교지원센터'라는 슬로건 아래 학교를 지원하고 있는 영천학교지원센터는 2022년 교육지원청 역할 재구조화 시범청으로 지정되어 '교육지원청 내 역할 CO-트랜스포메이션 모색'을 통한 학교업무지원 기능 강화'를 주제로 새로운 학교지원 방식을 모색하여 추진하고 있다.

부서 간 협업 중심의 역할 재구조화를 통한 주요 지원 업무로는 코칭 체육육상수업 지원, 거점유치원 학부모 연수 진행, 건강증진 협력 영양교사 수업자료 제작 지원, 그 외 각종 교사연수 지원 확대 등이 있다. 올해 시범청 운영을 통해 추진한 사업의 효과성 및 만족도 분석을 통해 만족도 높은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 업무를 발굴하여 교사의 행정 업무를 경감하고 학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학교지원센터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 희망 둘,  
火通, 수업공감·회복적 생활교육 콘서트, 지원장학으로 교원역량 강화

학교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직면한 문제의 해결 방법을 함께 찾음으로써 학교 현장에 다양한 도움을 주고 있는 지원장학을 통한 교원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돋보였다.

영천교육지원청이 신규·저경력교사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멘토링을 제공함으로써 수업력 향상에 대한 고민, 학생·학부모와의 관계 형성에 대한 어려움을 나누고 함께 해결해가도록 지원해주는 「火通, 수업공감·회복적 생활교육 콘서트」는 올해 5년차로 접어들어 이제 완전히 정착된 대표적인 지원장학 프로그램이다.

'火通'이란, 화요일에는 수업과 공감으로 통한다는 의미이다. 프로그램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火通 콘서트'는 수석교사와 신규·저경력교사 4~5명으로 팀을 구성한 후 매월 넷째주 화요일에 만나 수요자인 멘티의 배움 욕구를 적극 수용한 주제로 연간 8회의 멘토링을 진행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비대면의 방식을 병행하였고 단순히 멘토인 수석교사의 노하우를 전수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멘티의 수업을 공개하거나 지상수업 운영, 수업 계획에 대한 토의 등 수업 방법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논의되었다.

또한, 교사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회복적 생활교육 번외 프로그램도 운영하여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학생과

더 잘 소통하는 방법을 안내하였다.

마무리 콘서트는 멘토의 소감 발표와 멘티의 성장기 나누기, 2023학년도 운영 시 개선할 점 등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하였다.

영천교육지원청은 교사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2023년에도 더 많은 교사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火通, 수업공감·회복적 생활교육 콘서트」를 운영할 방침이다.

■ 희망 셋,  
호국문화와 함께하는 골벌인의 희망 프로젝트

향토 위인 3선현(정몽주, 최무선, 박인로)의 생애 업적 알기 프로젝트를 통해 호국의 얼을 찾고,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내 고장 체

험 탐방 및 사제동행 지역 탐방, 별따라 길따라 영천나들이 프로그램, 전입 새내기 교사 지역 문화 투어 등을 통해 고장에 대한 이해와 향토사랑을 높이고 있다.

특히 올해는 학교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교육지원청에서 기획하고 추진까지 일괄 진행한 「별따라 길따라 영천나들이」는 지역 내 과학, 문화, 예술 등 다양한 사회자원을 활용하여 문화예술 소양 함양과 진로탐색, 인성교육까지 아우르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참여 학교와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보현산 천문과학관, 운주산승마장, 시안미술관, 영천목재문화체험관 등 우리 고장의 체험기관을 고루 경험하는 「별따라 길따라 영천나들이」 프로그램은 일상회복 전환에 발맞춘 특색있는 학교 밖 체험으로 학생들의 감성

과 정서회복에도 도움을 주었다.

뿐만아니라 주말 체험 프로그램으로 「호국충절 내고장 탐방」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5월과 10월 토요일마다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한의마을, 화랑설화마을, 보현산땀공원 등 우리 지역의 문화와 호국정신이 깃든 명소를 답사하며 내고장 바로 알기에 도움을 주고 있다. 영천교육지원청은 내년에도 지역 내 다양한 체험기관과 연계하여 내실있고 교육적인 체험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 희망 넷,  
문화예술체험과 상담 콜라보를 통한 심리·정서 회복 지원

지속되는 코로나로 인하여 줄어든 야외 활동과 또래 간 교류 및 친교활동 제약으로 학생들의 우울 및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지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우려되고 있기에 영천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의 심리 정서 회복 지원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연예술과 함께하는 진로탐색으로 플라잉 공연 관람을 지원하고, 찾아가는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Wee센터에서는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청소년문화예술지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지역사회청년희망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 「교실로 찾아가는 원데이 문화 체험활동」을 실시하여 차별화된 지원을 하였다. 원데이 클래스는 청년YSTAR 강사 인력풀을 바탕으로 '케이크 아트'와 '퍼스널 컬러체험' 등 초, 중, 고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원데이 클래스 수업 시 Wee센터 상담교사 및 전문상담사가 함께 참여하며 체험활동 중에 자연스럽게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체험과 상담의 콜라보로 마음 읽기와 치유에 도움을 주었다.

특히 지역 내 문화활동이 어려운 곳에 위치한 작은 학교에 우선적으로 찾아가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간 문화체험 기회 격차를 줄이기도 했다. 이러한 다양한 채널의 심리·정서 지원을 통해 코로나 시기 학생들의 스트레스 수준을 낮출 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하는 경험 속에서 심리적 안정과 행복감을 느끼게 하여 건강한 성장과 일상회복을 돕고 있다.

■ 영천교육, 더 낮은 자세로 희망을 찾다!

코로나19가 여전히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있지만, 이제 우리에게서 무엇보다 함께, 슬기롭게 소통하고 공유하는 역량이 생겨나고 있음을 깨달은 한 해였다.

주원영 교육장은 "섬김과 겸손 그리고 변화"를 핵심 경영 마인드로 하여, 학생에게는 즐거운 배움과 새로운 희망을 주고, 교원에게는 가르치는 보람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교육복지 실현과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으로 지역민과 교육가족의 신뢰를 굳건히 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면서, "아직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 앞에 있지만, 학교의 교육회복을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화와 발전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영천교육지원청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영천교육지원청 “희망” 학교현장 온전한 교육회복  
“더해주고 덜어주는 학교지원센터”  
‘火通’ = 화요일엔 수업과 공감으로 통한다  
주원영 교육장 “따뜻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